

12. 2018 + 0
2017

2018 7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이달의 표지 작가

이피



2018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시각예술 분야 선정 작가. 평면과 조각 설치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미술대(SAIC)에서 BFA, MFA 과정을 수료했으며, 뉴욕 Gallery HD 텔레비전의 〈Artstar〉 시즌 2에 출연했다. 〈Feminism Fnosticism〉전(2018)과 〈천사의 내부〉전(2016) 등 13회의 개인전과 여러 그룹전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레지던시와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빌바오 레지던시에 입주했다. 8월 말부터 제사에서 소외받지 않는 여성의 제례를 형상화한 조각과 평면 작업으로 자하미술관에 서 〈여 - 불천위제례〉라는 타 이들의 개인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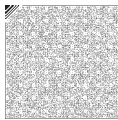
- 1 〈촛불을 든 백만 개의 손을 위한 만다라 프로젝트〉 장지에 먹, 색연필, 금분, 수채 | 148×214cm | 2017
- 2 〈모든 종교의 천사〉 장지에 먹, 색연필, 금분, 수채 | 151.5×214cm | 2017
- 3 〈현생누대 신생대 이피세 대백과_00004 동물계, 척삭동물문, 영장류목, 사람과, 사람속 바닥까지비천해진희망인〉 Mixed Media | 63×63×27cm | 2017
- 4 〈내 몸을 바꾸기 위한 신체 진열대〉 장지에 먹, 색연필, 금분, 수채 | 566×223cm | 2017

표지 작품

〈내 몸의 전세기〉 Mixed Media | approx. 200×200×200cm | 2015



3



나는 조각 작업과 평면 작업에 거의 똑같은 시간을 할애한다. 내 작업은 부분과 전체의 대화이다. 개인과 집단 간의 대화, 나무 이파리 하나와 숲의 대화. 내 몸의 소화기관과 내 몸 전체의 대화 말이다. 이를테면 표지 작품인 <내 몸의 전세계>를 통해 나는 내 몸에 붙은 전 세계를 상상한다.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큰 조각 하나를 상상한다. 타자를 자신의 몸에 모시는 한 여자를 상상한다. 8개의 발이 달린 거미 여인을 상상한다.

나의 작품 하나는 내 몸처럼 한 덩어리의 전체이지만, 각 부분을 들여다보면 작은 부분들 각각은 하나의 전체로서의 완결성과 독립성을 지닌다. 몇 백 개의 작품들이 모여 다시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것이다. 이 과정은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는 미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듯 보일 수도 있다. 나는 보이는 몸으로서, 하나의 전체로서의 장소다. 하지만 내 몸에는 복잡 다단한 시간과 사건, 인물, 관계, 사회 구조가 새겨져 있다. 나는 그런 장소의 몸을 구축한다. 나는 하나의 몸이지만 내 몸에는 내가 아닌 수천의 몸이 기생한다. 그들은 나의 감정이 되고, 감각이 되고, 사유가 된다. 나는 내가 되기 이전의 바로 그들을 내 몸이라는 장소에 이입한다. 그들 각자는 나와 똑같은 하나의 장소이며 현재다. 그들은 하나씩의 전체이다. 생물학적 몸이 아닌 육화하여 타자의 것으로 진행되는 몸, 또 다른 물질의 몸, 나의 밖이 나라는 감응자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파토스와 기형(다리가 8개인 몸)이 진행되는 몸을 생성하는지를 들여다보기 바란다.

내 작품을 타자를 모시는, 내 몸의 안이 되는 내 몸의 바깥을 모시는, 나의 현상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작품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볼 수 있으며 부분 또한 하나씩의 작품, 수백 개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큰 조각 안팎에 수백 개의 작은 조각들을 형상화했다. 이 조각을 다 만들고 나서 나는 이 여인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vol.137



_6~20쪽 '테마 토크'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01 커버 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이피
- 04 발행인의 말 주철환의 더다이즘, 스물두 번째

테마 토크

창고大개방! 다시 돌아온 공연장

- 08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연장의 재개관을 바라보며 가치를 지킬 수 있을 때 역사는 빛을 발한다
- 10 삼일로창고극장의 재개관에 부쳐 신화에서 진화로
- 12 삼일로창고극장 둘러보기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립니다
- 14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회 회의 현장을 가다 개방된 창고, 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 18 삼일로창고극장 프로그램 소개 연극의 보물창고가 열린다

사람과 사람

- 22 문화인 안무가 안은미
 - 28 우리 내기할까요 조아제약 조성배 대표이사
 - 32 진실 혹은 대담 서울문화예술교육 콜로키움 〈서울, 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 1차
 - 38 예술가의 밥그릇 벽화 전문 사회적기업 '데이그래피' 박희정 대표
-
- 40 서울 찰나

이슈 & 토픽

- 42 쟁점 정부의 '문화비전2030'과 '새 예술정책'에 대하여
- 46 화제 1 공유성북원탁회의, 제3회 국제문화상 수상
- 48 화제 2 남북정상회담과 '미술 정치'

공간, 공감

- 50 공간 1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 52 공간 2 을지로of
 - 54 공감 1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시카고〉
 - 56 공감 2 전시 〈디시전 포리스트〉와 〈예술과 기술의 실험(E.A.T.): 또 다른 시작〉
 - 58 공감 3 책 〈그녀 이름은〉과 〈여신을 찾아서〉
 - 60 공감 4 영화 〈히스토리〉와 〈여중생A〉
-
- 62 예술적 상담소

Soul of Seoul

- 64 메모리 인 서울 국회의사당의 역사
 - 66 서울 단상 기행작가 정은숙의 천호동 구사거리
 - 68 서정민의 썰(說) 〈류이치 사카모토: 라이프, 라이프〉전과 문화공간 피크닉
 - 70 장일범의 음악 정원으로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 72 서울 건축 읽기 SK서린빌딩
 - 74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나카타 히데오 감독의 〈검은 물 밑에서〉
-
- 76 7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84 편집 후기

주철환의 더다이즘
스물두 번째

그래도 나무는 자라고 있다

한국 실험연극의 산실로 불리는 삼일로창고극장이 '다시' 문을 엽니다. ('다시'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부사입니다.) 그동안 문을 열고 닫기를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 운영을 맡은 서울문화재단 대표로서 재개관식 초대의 글을 의뢰받으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대학 시절에 처음 연극을 본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명동성당에서 친구를 만나 극장 쪽으로 걸어 올라가던 시절의 발걸음은 꽤 설렘했습니다. 그 느낌을 어떤 언어로 되살릴 수 있을까요. 이럴 땐 노래가 제격입니다. 예전에 흥얼거렸던 유행가 한 소절이 퍼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추억 남길 삼일로 고갯길.'

기억하는 분이 많지 않겠지만 노래 제목은 <삼일로>이고 가수 이름은 여운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가끔 <가요무대>에 출연합니다. 야구선수 출신으로 당시엔 아이돌 가수 못잖은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삼일로>도 대중에게 사랑받았지만 이분의 최고 히트곡은 따로 있습니다. 제목이 <과거는 흘러갔다>입니다. 2절 가사가 특히 애잔합니다. '잃어버린 그 님을 찾을 수 있다면 까맣게 멀어져간 옛날로 돌아가서 못다 한 사연들을 전해보련만 아쉬워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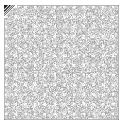
부활한 삼일로창고극장에서 '잃어버린 그 님'을 찾는다면 그 님

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은 연극배우 추송웅(1941~1985)입니다. (그와 동갑인 배우 중 김혜자, 나문희, 강부자 씨 등은 지금도 장르를 오가며 활동 중입니다.) 추송웅 씨 하면 올드팬들은 두 작품을 기억할 겁니다. 모노드라마 <빠알간 피터의 고백>과 일일드라마 <달동네>입니다.

'빠알간 피터'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작은 극장 앞에 몇 달 동안 수만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 다. 당시에는 의자도 없고 바닥에 앉아서 연극을 보던 시절이었 습니다. 그 많은 관객은 도대체 무엇에 홀렸던 걸까요?

도시 속 실향민들의 삶을 그린 <달동네>의 시청률 역시 엄청났습 니다. 당시는 추송웅이라는 이름 대신 '뚝순이 아버지'로 더 유명 했습니다. 흑백TV가 컬러로 바뀔 무렵이어서 시청자들은 흑백의 달동네로 시작해 총천연색 달동네로 끝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탤런트 김민희는 평생 '뚝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는데, 사 실 그 역할은 추송웅 씨의 딸인 추상미 씨가 맡을 뻔했다는 비하 인드스토리도 있습니다.)

삼일로창고극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삼일빌딩이 있었는데 1970년대에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삼일로와는 관계없이, 31층이어서 삼일빌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후 63 빌딩이 생기면서 명함도 못 내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잠실에는



123층 건물까지 들어섰는데 연극배우가 서야 할, 서고 싶은 변변한 극장들은 왜 늘어나지 않는 걸까요?

삼일빌딩은 그대로인데 삼일로창고극장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창고가 극장이 된 것은 참으로 아름다웠지만 반대로 극장이 창고가 되는 현실은 적잖이 안타까웠습니다. “예술이 가난을 구할 수는 없지만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한동안 삼일로 창고극장 외벽에 붙어 있던 ‘명언’입니다. 과연 이 말로 몇 명의 배우가, 연출가가, 극작가가, 스태프가 위로받았을까요? 추송웅 씨가 창고극장에서 안방극장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사연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삼일로창고극장이 문을 닫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한마디로 ‘경영난’이었습니다. 왜 이 땅의 연극, 아니 무대는 대부분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 사태를 지켜보면서 김수영 시인(1921~1968)의 시 〈공자의 생활난〉이 교묘하게 오버랩된 적이 있습니다. (김수영 시인도 한때 연극에 몰두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의 여운이 강렬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부흥은 박수와 눈물로도 가능하지만, 부흥의 전제조건은 언제나 죽음입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연극에 임해야 무대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삼일로창고극장의 부활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극장은 연습실과 갤러리를 갖춘 지원시설로 다시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연극인들과 손을 꼭 잡고 연극의 부활을 모색하고 협의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안방극장엔 광고와 영상이 있지만, 창고극장엔 사람과 호흡이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객은 극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할 일은 ‘창고’ 대방출입니다. 하지만 ‘짜게’ 만들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삼일로창고극장이 지향하는 두 개의 기둥은 품격과 파격입니다. 초심, 진심, 열심을 바탕으로 시대정신과 청년정신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로 윤동주의 〈서시〉가 뽑힌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다짐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무대를 되살리기 위해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시인이 서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김수영의 〈서시〉(1957)에 나오는 구절로 오래된 희망을 불러내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자라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창고大개방! — — 다시 돌아온 — 공연장

1975년 개관한, 소극장 운동의 발상지이자 수많은 연극인을 배출한 삼일로창고극장. 그리고 1976년 개관 이후 한국 연극의 거점공간 역할을 해온 정동 세실극장. 두 공연장은 연극계의 심장 같은 곳으로, 소극장 시대를 잇는 대표적인 공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두 공연장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폐관 위기를 겪으며 잠시 운영이 중단되거나, 운영자가 바뀌고 이름이 변경되는 등의 부침을 겪어야 했다. 운영난으로 잠시 폐관했던 두 민간 공연장이 최근 공공자원을 통해 재개관하여 한국 연극 태동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7월 '테마 토크'에서는 지난 4월 11일 재개관한 세실극장과 6월 22일 재개관한 삼일로창고극장을 소개한다. 존폐 위기를 딛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두 공연장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앞으로 새롭게 써내려갈 역사를 그려본다.

그림 백두리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연장의
재개관을 바라보며

— 가치를 지킬 수 — 있을 때 역사는 — 빛을 발한다

삼일로창고극장과 세실극장처럼 폐관된 민간 공연장이 공공지원을 통해 재개관한 사례는 흔치 않다. 2010년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에 휩쓸리며 한국 연극 1세대 극장들이 폐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실제 공공기금을 통해 공연장이 다시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여, '미래유산'으로서 먼저 재개관을 경험한 세실극장의 어제와 오늘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삼일로창고극장이 나아가야 할 좌표를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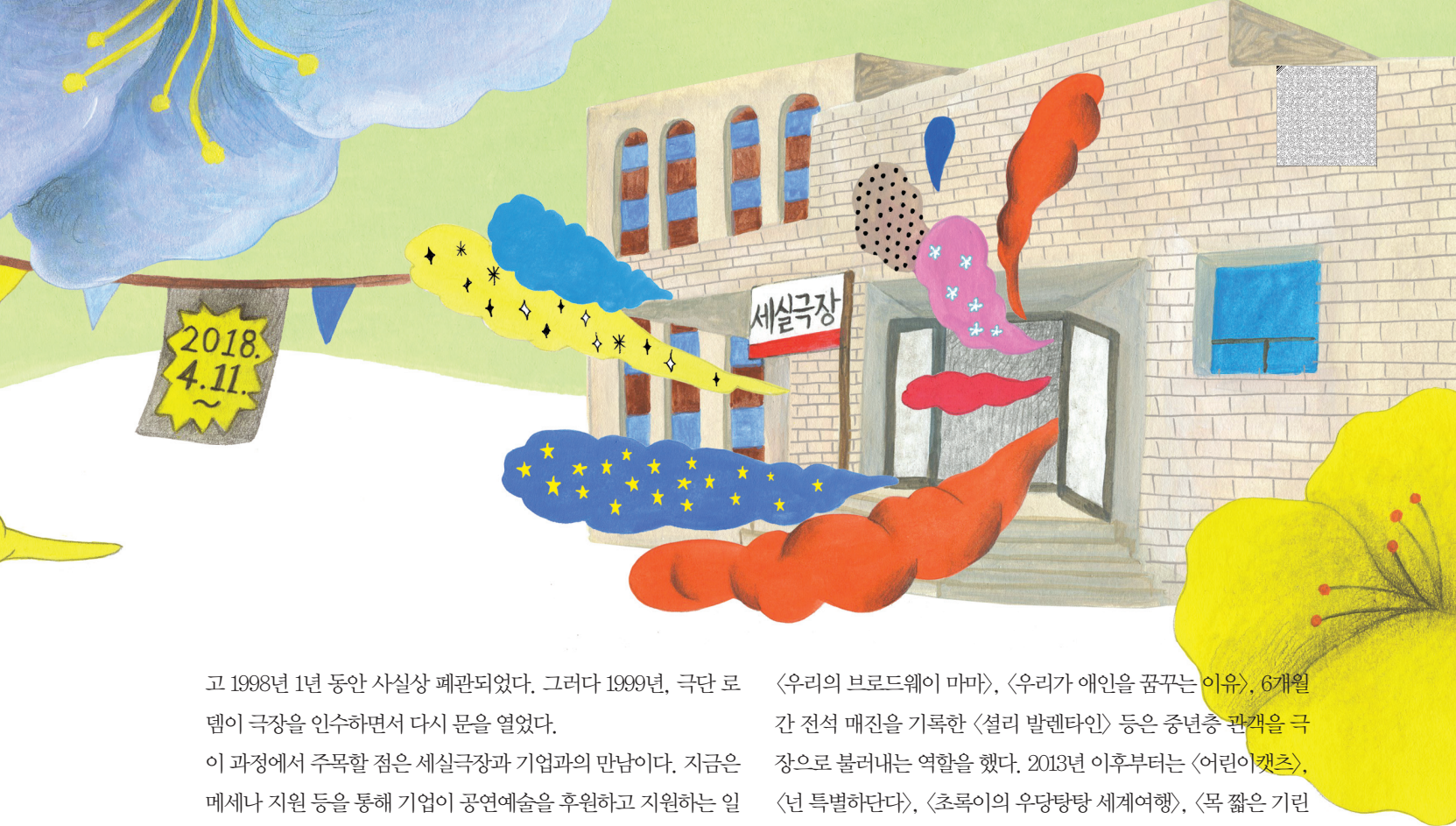
2015년 폐관됐던 명동 삼일로창고극장이 6월 22일 재개관했다. 폐관 이후 2년 동안 멈춰 섰던 공연장이 2017년 서울시가 10년 동안 장기 임차하면서 다시 관객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 '미래유산'을 지정하고 있는데, 삼일로창고극장은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1975년 개관 이래 지난 40여 년간 수많은 연극인을 배출해낸, 소극장 운동의 발상지이자 연극계의 심장 같은 공간으로 자리해온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이와 유사하게 1976년 개관한 정동 세실극장 역시 지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개관 이후 42년 동안,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 연극의 주요 거점공간으로 자리했던 극장의 가치가 미래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역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1월, 세실극장은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관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곧바로 서울시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연장을 되살릴 방법을 모색했고, 세실극장은 2018년 4월 11일 재개관하여 한국 연극 태동의 역사를 이어가게 됐다.

충무로, 안국동, 정동을 잇는 거점공간으로서의 세실극장

1976년 개관한 세실극장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연극인회관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대한민국연극제(현 서울연극제)를 1회부터 5회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1981년 대학로에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이 개관하고 1986년 후반부터 소극장이 자연스럽게 대학로에 운집하며 대학로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세실극장은 명동, 충무로, 운니동(안국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1970년대 초반의 소극장 시대를 잇는 대표적인 공간이었다.

이러한 세실극장 역시 지난 42년 동안 끊임없이 폐관 위기를 맞았다. 1981년 문예회관이 개관하고 연극 활동의 주요 거점이 대학로로 이동하면서, 1981년 극단 마당이 성공회로부터 장기 임대해 공연장을 운영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극장 시설 투자가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1997년 재정난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되었



고 1998년 1년 동안 사실상 폐관되었다. 그러다 1999년, 극단 로템이 극장을 인수하면서 다시 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세실극장과 기업과의 만남이다. 지금은 메세나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공연예술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 제일화재는 1999년 5월부터 세실극장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당시 '제일화재세실극장'으로 이름을 바꿔 재개관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다. '대기업의 동정적인 후원 대신 극장 이름에 기업명을 명기하는 등 기업에 충분히 보상하면서 후원을 받는' 문화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제휴 방안은 국내 최초의 시도로서 공연단체는 물론 대기업과 사회 전반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연문화시설과 기업이 상생하는 실질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세실극장은 공연예술계를 활성화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0년 제일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을 합친 한화손보가 출범하면서 '한화손보세실극장'으로 개명했으나, 2012년 한화손보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다시 한 번 폐관 위기를 맞았다. 당시 극장을 운영하던 극단 로템은 새로운 후원기업을 찾지 못해 결국 극장 운영을 중단했고,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오씨어터'가 다시 '세실극장'으로 개명해 운영했다.

중년층부터 어린이까지, 관객과 함께 성장한 극장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세실극장은 다양한 여성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나, 여자에요!〉를 시작으로, 〈버리는 여자, 버려진 여자〉,

〈우리의 브로드웨이 마마〉, 〈우리가 애인을 꿈꾸는 이유〉, 6개월간 전석 매진을 기록한 〈설리 발렌타인〉 등은 중년층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내는 역할을 했다. 2013년 이후부터는 〈어린이캐츠〉, 〈넌 특별해단다〉, 〈초록이의 우당탕탕 세계여행〉, 〈목 짧은 기린지피〉, 〈꾸러기 소방대〉, 〈파이어맨〉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해왔다. 세실극장은 1976년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층위의 관객들을 만나며 한국 연극 성장기의 흐름을 견지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점이 바로 지난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세실극장의 근간이었다.

2018년 4월, 재개관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도시환경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삶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키면서 그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재생해 영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세실극장은 이제 동시대를 읽어내는 공간으로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세실극장에는 한국 연극 태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건축물의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공연장의 가치는 물리적 존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관객이 찾지 않는 공연장이 더 이상 공연사적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듯이 그 이름에 맞게 시민과 예술가들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보다 명확하게 기능해야 한다. '미래유산'이라는 재개관의 변에 붙여진 수식처럼, 세실극장은 공연장으로서 동시대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속해야 할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 최윤우 한국소극장협회 사무국장 · 그림 백두리

삼일로창고극장의
재개관에 부쳐

“신화에서 — — 진화로”

명동에 위치한 삼일로창고극장은 1975년 개관한 이래 소극장 운동을 이끌며 공연예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010년대 중반까지 창작자에게는 실험적인 작품의 발표공간으로, 대중에게는 공연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이름을 떨쳤다. 지난 2013년에는 이곳을 거쳐간 여러 문화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긴 역사만큼 수차례 존폐 위기를 견뎌낸 삼일로창고극장은 최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 역사를 지속하게 되었다. 기존의 가변형 무대를 그대로 살려 보존하고, 스튜디오형 연습실과 갤러리를 더해 예술가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관객들과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극장은 한 명의 극장장이나 예술감독 체제가 아닌, 6명의 전문위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꾸려진다. 2018년 여름 재개관 첫 프로그램으로는 고 추송웅 배우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오늘날에 맞게 되살리자는 시도로 <빨간 피터들>(기획 이경성 운영위원)이 무대에 오른다.

1970년대 소극장의 신화

1970년대 명동 골목을 배회하던 연극하는 젊은이를 떠올려본다. 그는 명동극장과 드라마센터 같은 공공극장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공연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여건에 불만이 가득하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작품을 검열하는 정권에 대한 분노도 크다. 변화가의 다방에서 아주 가끔 동료들과 예술을 논하지만, 내심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고민이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이 거리를 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근처에 작은 스튜디오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눈치 안 보고 연극을 마음껏 할 수만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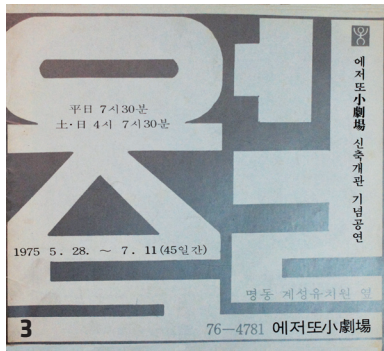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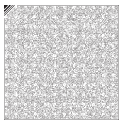
마치 평행우주처럼, 1970년대와 2010년대의 젊은 예술가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공연예술은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 훈련을 통해 완성되는 장르이니 그럴 수밖에. ‘공간’ 문제에 대한 나름의 지구책은 늘 필연적이었던 셈이다. 한국의 연극사에서 ‘소극장 운동’의 의미와 가치가 독자적인 공간을 갖춘 극단이 그 안에서 나름의 돌파구를 찾은 데서 비롯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떠올렸던 1970년대 젊은 연극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극단 에저또의 대표였던 30살의 방태수 연출가는 성모병원 뒤 2층 가정집을 구입했다. 극장으로 쓰기엔 천장이 낮았기 때문에, 암반으로 된 지하를 조금씩 파내려가는 작업을 단행했다. 그러기를 1년, 오랜 공사 끝에 에저또소극장(이후 에저또창고극장으로 이름 변경)이 문을 열었다. 공사비가 없어서 극단 단원들과 함께 곡괭이로 5개월 동안 땅을 팠다고 하는데, 상상만 해도 한숨과 미소가 절로 교차한다.

그러나 이제 웬걸, 호기롭게 실험극을 내세우며 출발했던 에저또 소극장은 단 ‘1년’ 만에 운영난으로 문을 닫는다. 이후 이원경 연출가가 유석진 박사의 파격적인 후원으로 극장을 인수하고 ‘삼일로창고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한다. 당시 젊은 평론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극장이 세운 몇 가지 운영 방침은 이러했다. 첫째, 연중무휴로 공연한다. 둘째, PD 시스템을 도입한다. 셋째, 창작극 발굴을 우선한다. 넷째, 젊은 극작가와 연출가를 양성한다. 이처럼 지금의 극장들이 삼고 있는 기본 원리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삼일로창고극장은 가히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극장이 보여준 혁신적인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인상적인 작품이나 작가에 창고극장상을 수여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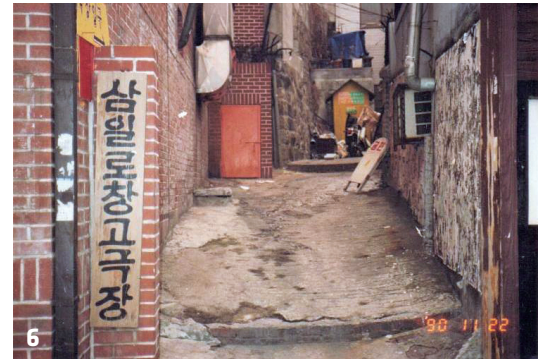
- 1 공연을 보기 위해 에저또창고극장 앞에 줄을 선 관객들. (사진 제공 방태수)
- 2 1975년 에저또소극장 내부 모습. (사진 제공 방태수)
- 3 1975년 에저또소극장 신축개관 기념공연 홍보물 (사진 제공 방태수)
- 4 1977년 <빠알간 피터의 고백> 홍보물.
- 5 삼일로창고극장 개관 30주년 기념공연 <결혼> 홍보물.
- 6 예전 삼일로창고극장 모습. (사진 제공 극단 로얄씨어터)

했고, 한일 최초의 연극교류 작품이었던 극단 하켄노카이의 <한 여름 밤의 꿈>을 공연하기도 했다. 마음을 전문으로 했던 극단 에저또의 영향을 받아 잠깐이지만 한국 마임의 성지 노릇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소극장 역사상 최장의 연속 공연과 최다 관객 동원, 최고 흥행 수익을 기록한 곳이기도 했다. 작고한 추송웅 배우의 모노드라마 <빠알간 피터의 고백>(1977)은 상연을 시작한지 몇 달 만에 수만 명 관객이 관람하며 연극사에 전무후무한 메가 히트작으로 남았다.

2010년대 소극장의 진화

신화화될 만큼이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극장이 자리해온 40년의 시간 속에는 알려지지 않은 여백과 부침도 꽤 있다. 승승장구하던 삼일로창고극장은 1983년에 폐관했다. 그 후 테아뜨르 추 삼일로극장(대표 추송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도 했고, 1986년 극단 로얄씨어터(대표 윤여성)에 의해 운영되기도 했으나 재정난으로 문을 닫고 잠시 동안 김치공장이 들어서기도 했다. 1998년 명동창고극장(대표 김대현)으로 공간을 되찾았으나 다시 운영난으로 폐관했고, 2004년부터는 삼일로창고극장(대표 정대경)이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물론 2010년대 들어와서 재정난으로 폐관 위기와 기업 후원을 거쳤고, 역시나 '재폐관'을 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정작 신화로 여겨지는 건 극장의 재개관 횟수가 아닐까?)

극장의 궤적을 따져보면 지난 시절 극장을 운영하고 무대를 채웠던 이들의 시도는 다소 모순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이었다. 극장이 선언한 연극 이념에 따라 흥행하던 실험극을 일부러 중단하기도 했고, 극장이 배출한 신인들이 대학로의 주역이 되는 바람에 연



극의 변방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상업성과 거리를 뒀지만 의외로 대중적 성공을 이뤄내기도 했고, 자신 있게 극장 간판을 내걸었음에도 공간을 비워야만 했던 시간도 꽤 길었다. 돌아켜보면, 이상적인 만큼 현실에는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삼일로창고극장에는 문화운동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값진 순간들이 담겨 있다. 그 가치는 당대의 젊은 창작자, 그리고 그들의 헌신에 화답하는 익명의 예술 애호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점에서 삼일로창고극장이 '문화재'가 아니라 '미레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극장 운동의 계승과 지속은 극장을 대표하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상업 자본으로부터 배제된 '가난의 연극사'와 구시대적인 법률에 의한 '억압의 연극사'가 중첩된 공간인 '소극장'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 우리 앞에 주어진 장소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가꿀 것인가? 그렇게 가꾸어진 가치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젊은 예술가와 함께 시민들도 화답해야 할 순간이 왔다. 신화는 이제 그만, 지금은 진화를 모색할 때다.

글 정진세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 극단문 드라마 작가, 독립예술웹진 인디언웹 편집인

삼일로창고극장
둘러보기

“닫혔던 문이 — 다시 — 열립니다”

2년 8개월 만에 삼일로창고극장의 문이 다시 열렸다. 긴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공연장 공간 외에 상가로 사용되던 시설 전체를 새롭게 단장한 만큼, 삼일로창고극장은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고 새로운 역사를 덧입을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바로 이곳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VIP’라는 마음으로 시민과 공연 관계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재개관 행사가 열렸다. 초여름의 무더위를 뚫고 진행된 재개관 당일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3



1



2

- 1 재개관 행사에 앞서 6월 20일 2층 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습.
- 2 새 단장을 마친 삼일로창고극장의 입구.
- 3 <빠알간 피터의 고백>을 오마주하는 재개관 퍼포먼스.
- 4 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음악창작그룹 '더 튠'의 재개관 기념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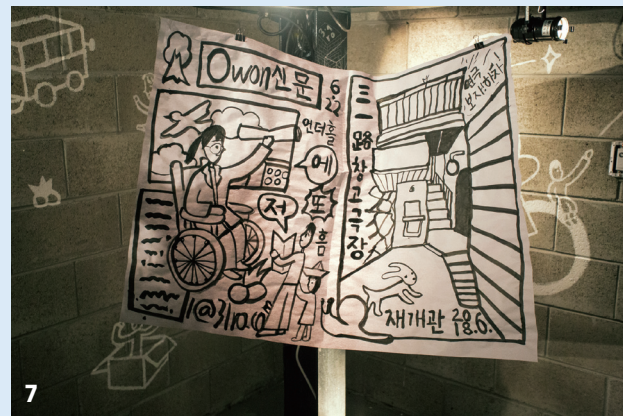
4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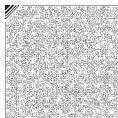
5 재개관식에서 인사말을 나누고 있는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

6 삼일로창고극장과 관련된 추억을 공유하는 시민 릴레이토크 "마음 깊은 곳에 삼일로".

7 1975년 첫 개관 당시 개관작이었던 <새타니>에서 영감을 받은 설치전시 <언더홀 스파크>작가 수목요일, 언더홀.

8 삼일로창고극장의 모태가 된 극단 에저프의 1966년부터 1977년까지를 조명하는 아카이브 전시 <이 연극의 제목은 없습니다>.(1층 갤러리)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회 회의 현장을 가다

개방된 —— 창고, 정을 ——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인파로 북적이는 명동의 한쪽, 명동성당 옆으로 작은 오르막길이 있다. 관광 명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한적하고 아늑한 길을 따라 오르면, 아담하고 개성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누구나 넘나들어도 좋은 듯 입구가 활짝 열린 곳, 삼일로창고극장. 6월의 어느 날, 이곳으로 하나둘 사람들이 모였다. 재개관을 앞둔 이 극장의 운영위원들이다. 중요한 회의를 위해 모였지만, 모두들 재밌는 놀 거리를 찾아온 듯 유쾌한 모습이다. 관객들 또한 이들의 뒤를 따라 설레는 마음으로 삼일로창고극장을 찾을 것이다.

민간 운영위원회가 이끈다

2015년 10월 폐관된 삼일로창고극장이 지난 6월 22일 재개관했다. 서울시가 장기 임대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지만, 삼일로창고극장은 민간 소극장의 전통을 지닌 곳이기에 그 역사를 살려 현장에서 뛰는 연극인들이 극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뒤따랐다. 민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이다.

삼일로창고극장은 처음 개관한 1975년 이후 1980년대를 지나면서, 새롭고 실험적인 극장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남산예술센터 우연 극장장의 말처럼, “당대 젊은 연극인들의 아방가르드 실험실 같은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런 특성은 뒤이을 만한 가치가 있기에, 오늘날의 젊은 연극인들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공간으로 극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이들을 모아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울시가 협의해 위촉한 운영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삼일로창고극장의 운영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당연직을 맡은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우연 극장장과 더불어 5인의 문화예술인이 선임직으로 위촉됐다. 프로듀서그룹 도트 크리에이티브의 프로듀서이자 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 기획위원인 박지선,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대표 오성화,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겸 크리에이티브 VaQi 연출가 이경성, 혜화동1번지 극장장 겸 앤드씨어터 연출가 전윤환, 극단문의 작가이자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의 편집인 정진세, 공통적으로 젊고 실험적인 연극인 플랫폼을 꾸린 경험이 있으며, 공연 관련 축제 및 네트워크를 통해 폭넓은 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렇게 총 6명이 1기 운영위원으로 선정돼, 2019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활동한다.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들은 정기 및 수시회의를 통해 극장의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 및 예산, 프로그램 등을 공동 결정한다. 특히 재개관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았다. 그 때문에 2017년 5월 18일에 제1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6월 8일에 열린 첫 번째 운영회의에서부터 그들의 활약이 시작됐다.

삼일로창고극장 바로 세우기

이경성 위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힌 첫 번째 운영회의. “재개관을 앞두고 극장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극장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할지 다각도로 논의”했다. 그날의 주요 안건은 극장 명칭이었다.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재개관을 앞두고 회의 중인 운영위원장들.

했고, 그 결과 삼일로창고극장이라는 과거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삼일로창고, 창고극장, 삼일로극장, 명동 창고극장 등의 이름을 원한 시민들도 있었다.

재개관을 앞두고 극장 내실을 다지는 운영회의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극장 정체성을 다지는 자리도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공연계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운영자문회의를 열었다. 2017년 6월 22일, 첫 번째로 열린 운영자문회의에는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관계자 및 연극평론가들이 참여했다. 재개관 및 운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문화재단의 위탁 운영 및 민간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제기됐고,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극장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공유했다. 또한 과거 이 극장을 향유했던 세대와 현재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될 젊은 세대의 간극, 활용 주체로서 시민과 예술인의 차이 등 폭넓은 의견들이 오갔다.

첫 번째 운영자문회의는 운영위원회에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겨 주었고, 그 과제는 이어지는 운영회의의 논의 주제가 되었다. 개관 전과 후로 나누어, 개관 전에는 극장 성격 및 개념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 운영자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지는 의견이 모아졌다. 개관 후에는 분위기를 바꾸어, 극장 콘텐츠 구성에 도움이 될 만한 자문회의가 필요하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 또한 “삼일로창고극장은 기존 민간 소극장들에게 두려운 존재일 수 있다. 네트워크는 비슷하지만 여건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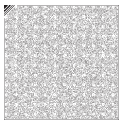
윤환 위원의 말처럼, 삼일로창고극장의 독특한 위치, 즉 민간과 공공기관이 만난 소극장이라는 점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데도 합의했다.

그리하여, 2017년 8월 28일에 열린 제2차 운영자문회의에는 한국소극장협회 관계자와 몇몇 소극장 대표가 모였다. 이들은 민간 소극장 운영자의 입장에서 삼일로창고극장의 등장 의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후, 이곳에 바라는 바를 털어놓았다. 다양한 의견을 들은 오성화 위원은 ‘힘 있는 공공 소극장’에 대한 바람을 가장 경계한다며, “씨앗을 뿌리는 공공 소극장으로 운영되길 바란다. 하지만 열매만 거두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내놓았다. 한 명의 힘 있는 내부자 또는 외부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주체성을 발현하며, 기존의 여타 공공 소극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삼일로창고극장 채우기

극장 운영 방식 및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운영회의의 한 축을 이루었다면, 개관 후 극장을 채울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다른 한 축을 차지했다. 재개관 기념작으로 선정된 〈빨간 피터들〉을 누구의 참여로, 어떤 방식으로 공연할지 수차례 이야기가 오갔다. 또한 삼일로창고극장의 개성을 더하는 공연 외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창작자 및 관객 문화 형성에 대해 논의한 제3·4차 운영자문위원회가 이런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조연자 역할을 했다. 두 차례의 모임에서 현재 유효한 실험뿐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실험들을 복기해 다양한 세대의 만남을 가능케 했으면 하는 바람, 창작자와 비평가 간 연대를 통해 건강한 담론을 만들면 결국 관객과 연결되리라는 의견, 대학로 소극장과는 적극적인 교류 및 공연계 외부 사회와의 연대를 바라는 마음 등 삼일로창고극장을 향한 많은 관심들이 드러났다. 이런 의견들은 세대 교류 및 세대 확장, 세대 통합을 목표로 진행되는 대담 프로그램인 〈창고포럼〉과 극장의 역할을 확장한 〈창고개방〉 등에 영향을 주었다. 박지선 위원이 “예술가만이 아니라 평론가, 관객, 기획자 등이 모여서 담론을 형성하고 활발하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더한 ‘창고 사랑방’의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삼일로창고극장은 극장 및 갤러리, 스튜디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 만큼, 이 공간을 다채롭게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6명의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여 동안 운영회의를 꾸준히 진행하며, 극장 재개관에 대한 거대 담론부터 세부 사항까지 많은 논의가 오갔다. 드디어 재개관 전 마지막 회의, 지난 6월 12일, 재개관 및 재개관 행사의 최종 점검을 위해, 운영위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우선 앞서 이뤄진 극장 시험 가동 결과를 공유했다.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올리며 극장 곳곳의 공간을 이용한 후, 안전 문제나 불편한 점 등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미 여러 차례 논의해 익숙한 내용이지만, 재개관 기간 간담회 및 재개관식의 세부 사항과 순서를 재차 확인했다. 각 운영위원이 맡은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특히 재개관식이 한 편의 공연처럼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공연에 오르는 배우처럼 시간, 동선, 대사를 꼼꼼히 확인했다.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하고 다정하게 이뤄질 재개관식을 위해 “등장은 어느 쪽에서 하느냐”, “손님들에게 대접할 떡판은 어디에 준비하느냐” 등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재개관식에서는 모두가 VIP”라는 우연 위원

의 말처럼, 일부 행정 관료와 공연 관계자뿐만 아니라 삼일로창고극장에 관심 있는 관객들 모두를 귀빈으로 대접하기 위해 세심히 준비했다. 말로만 극장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이고 부딪치며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의 모습은 신뢰를 높여주었다.

“8차례의 운영자문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극장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 예전 가치를 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제작 문화를 만들자는 요구도 있었다. 우리의 운영 방향을 하나의 문구로 정하지는 않았다. 10년이라는 임차 기간 동안 집단 지성을 이용해 운영한다는 취지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진세 위원의 말처럼, 삼일로창고극장은 하나의 강력한 의견이 아닌 6명의 다양한 의견과 집단 결정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이곳이 다양한 사람들의 열린 공간이 되리라는 믿음이 커졌다.

글 이민선 자유기고가 · 사진 오계옥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 6인의

“삼일로창고극장에 바란다”



우연
남산예술센터 극장장
—
“창작자들이 극장의 기획 방향에 맞춰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생산하면 좋겠다.”



박지선
프로듀서그룹
도트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
“예술가만이 아니라 평론가, 관객, 기획자 등이 모여 담론을 형성하고 활발히 이야기해나 가면 좋겠다.”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
“힘 있는 공공 소극장에 대한 바람을 가장 경계한다. 씨앗을 뿌리는 공공 소극장으로 운영 되길 바란다. 하지만 열매만 거두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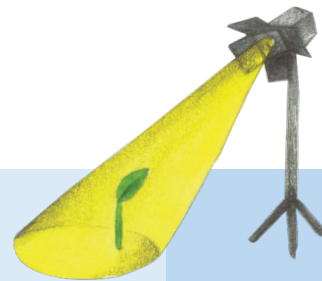
이경성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
“많은 이들에게 극장을 개방하여, 과거의 좋은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현재의 다양한 형식이 만나는 장이 되길 바란다.”



전윤환
해화동1번지 극장장
—
“좋은 결과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공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극장이 되길 바란다.”



정진세
극단문 작가
—
“특정 정보와 자원, 네트워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나누고 퍼트리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면 좋겠다. 극장의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싶다.”



삼일로창고극장
프로그램 소개

연극의 — — 보물창고가 열린다 —



1975년 문을 연 이후 같은 자리에서 여러 주인의 손을 거치면서 44년간 총 279편의 작품을 공연하다 문을 닫았던 곳, '빠알간 피터'가 수만 명의 관람객을 만나 수만 개의 추억을 선사했던 곳. '유산'이라고 하기에는 숨겨진 탐험거리가 더 남아 있을 것 같은 삼일로창고극장은 마치 미지의 보물창고처럼 느껴진다.



재개관 기념공연 시리즈 <빨간 피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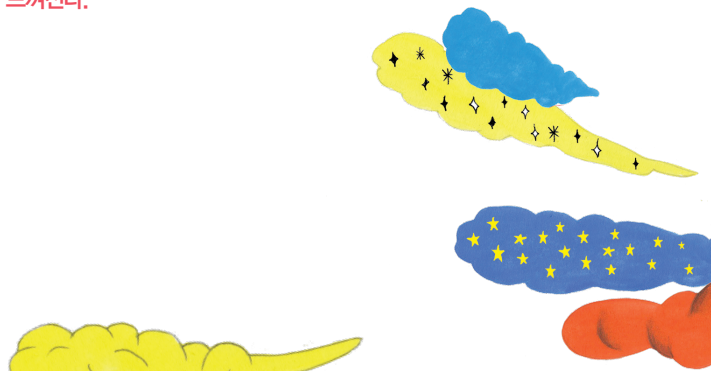
삼일로창고극장이 처음 문을 열었다는 1970년대에 관해, 그 이후에 태어난 필자의 주변 세대는 사실 체험한 것이 별로 없다. 개인적인 간접 경험을 꼽자면 2005년에 관람한 연극 <관객모독>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극단 76단이 낳은 1978년생 <관객모독>에 1979년생 래퍼 양동근이 주연으로 등장했다. 당시 대학로 초입을 점령하고 있던 <웃음을 찾는 사람들>과 <개그콘서트> 사이에서 정장 차림의 래퍼가 뱉는 묘한 대사는 1970년대의 대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과거를 새롭게 전승하는 오늘의 연출과 배우를 이 극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 삼일로창고극장의 시작을 알리는 재개관 기념공연 시리즈 <빨간 피터들>은 1977년 초연 당시 4개월 만에 6만 관객을 돌파한 고 추송웅 배우의 1인극 <빠알간 피터의 고백>을 오마주한 공연이다. 첫 번째로 6월 29일 공연을 선보인 <추ing_낯선자>(출연 하준호, 연출 신유청)에 이어 오는 7월 22일까지 매주 금~일요일 <K의 낭독회>(출연 강말금, 연출 김수희), <관통시팔>(출연·연출 김보람), <러시아판소리-어느학술원에의보고>(출연 최용진, 연출 적극)가 차례로 관객과 만난다.

<빨간 피터의 고백>은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소설 <어느 학술원

에 드리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1인극 열풍을 끌어냈다. 이로 인해 배우에 대한 최초의 연구서라 불리는 <추송웅 연구>(1992, 안치운 지음)가 발간됐고, 오늘날의 <빨간 피터들>은 이 연구서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됐다. 책에는 추송웅 배우의 삶과 연기, 그의 예술적 원동력 등이 상세히 쓰여 있으며, 당대의 연극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배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4명의 연출가, 4명의 배우가 각기 다른 고민을 1인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40년 전과 같은 장소에서 선보이는 것이다.

6월 22일 열린 재개관식에서는 일반 시민이 삼일로창고극장의 추억을 나누는 릴레이토크 프로그램이 마련돼 소소한 호응을 얻었다. <빠알간 피터의 고백>을 보며 데이트를 했던 1970년대 젊은 연인의 이야기, 극장 공연 포스터를 모으던 여고생의 이야기 등 다양한 추억이 소환됐다.





- 1 재개관식에서 진행된 시민 릴레이토크.
2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식 퍼포먼스.
3~6 <빨간 피터들>에 참여하는 4명의 배우.



과거의 에저또를 마주하다

수십만 명의 관객이 나뉘는 이야기를 만들며 다녀간 작은 극장은 1969년 창단한 극단 에저또가 만들었다.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에 딸린 부속동 1층 갤러리에서는 지금 한국 최초의 판토티임 전문 극단 에저또의 초기 활동을 조명한 아카이브 전시 <이 연극의 제목은 없습니다>가 열리고 있다. 이 전시는 삼일로창고극장의 원래 이름이 '에저또소극장'이었다는 것과 극장 설립 당시의 실험적인 소극장 문화를 보여준다. 에저또의 중심에 있었던 연출가 방태수의 개인 소장품에서 선별한 공연 리플릿, 티켓, 포스터, 프로그램, 대본 등 관련 책자를 비롯해 관련 기사, 개관 사진 및 공연 사진 등 160여 점의 자료를 전시한다. 또한 연출가 방태수, 마임리스트 유진규, 극작가 고 윤조병의 인터뷰와 주요 희곡 대본 5편을 열람용 자료로 소개하고 당시 희곡 검열과 공연법도 정리했다. 전시는 오는 9월 22일까지 진행된다.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이 있는 날에는 주말에도 공연 시작 전까지 관람 가능하다.



한편 매표소 안쪽 지하공간인 언더홀에서는 1975년 첫 개관작이었던 〈새타니〉에서 영감을 받은 수목요일 작가의 설치전시 〈언더홀 스파크〉를 7월 21일까지 선보인다. 한때 비밀 아지트로도 쓰였던 공간이라 탐험하는 기분을 내기엔 적격이다.

에저또소극장을 직접 개관한 방태수 연출가는 소극장 신축개관 기념공연 프로그램북에 “다변형 창고극장이란 어떠한 틀의 연극을 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가급적 어떠한 연극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공간 자체의 확보이며, 좁은 장소에서 최대한의 무대와 객석을 가질 수 있는 다목적 소극장이라 생각한다”고 썼다. 재개관한 삼일로창고극장은 1975년 개관 당시의 아래나 형태를 최대한 살려 60~80석 규모의 가변형 무대를 조성했고, 삼일로창고극장의 대표적 특징인 사방 등·퇴장이 가능한 구조 역시 보존했다. 재개관 기념공연과 기획 프로그램이 없는 날은 다양한 대관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삼일로창고극장의 첫 번째 수시 대관을 통해 총 9개 공연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객을 기다리는 보물들

삼일로창고극장의 운영 방향을 드러내는 동시에 예술창작 플랫폼으로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매년 무수히 배출되는 연극 관련 졸업논문에 주목하여 논문을 수행할 수 있는 무대를 저자에게 제공하는 〈퍼포논문〉(8월 17일~26일), 개방성을 가진 장소가 될 수 있도록 2주간 극장의 모든 공간을 점거하는 〈창고개방〉(가제, 12월 10일~23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좌담 프로그램 〈창고포럼〉(6~12월, 격월 1회), 만남·발견·확장을 키워드로 주제를 선정해 함께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는 〈창고공부방〉(6~7월, 11~12월), 주체적인 예술문화 형성에 관심 있는 그룹 간의 만남의 자리



재개관 기념 설치전시 〈언더홀 스파크〉 포스터.

〈창고사랑방〉(6~12월, 매월 마지막 주 1회) 등이 있다.

연극을 이론화한 텍스트를 다시 연극으로 환원하는 퍼포먼스인 〈퍼포논문〉은 2편의 공연으로 구성된다. 프랑스 렌즈대에서 박사논문 〈재현 불가능한 것을 다루는 동시대 공연의 몸의 장치에 대하여〉를 집필한 목정원은 〈노래의 마음〉(가제)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전문사 과정 논문으로 〈실재의 연극〉을 발표한 연극저술가 김슬기는 〈더 리얼〉을 각각 3일씩 무대에 올린다. 8월 20일, 두 번째 〈창고포럼〉에서는 ‘연극연구자 혹은 연극 관련 대학원생이 예술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 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동근은 2005년 〈관객모독〉 공연 당시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국서) 감독님은 감독님 나름대로의 자물통이 있고 저도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서로에게는 서로를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게 딱 열린 거죠.” 누군가는 이 새로 개방된 연극 보물창고에서, 우연히 열쇠를 발견해 그 나름대로의 자물통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어쩌면 당신은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글 이준걸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 · 사진 서울문화재단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공연

빨간 피터들



추ing_낮선 자
2018.06.29-07.01

출연 연출
하준호 신유청

K의 낭독회
2018.07.06-07.08

출연 연출
강말금 김수희

관통시팔
2018.07.13-07.15

출연, 연출
김보람

러시아판소리-어느학술원에의보고
2018.07.20-07.22

출연 연출
최용진 적극

빨간 피터들
빨간 피터들
빨간 피터들
빨간 피터들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시간 금 20시 토,일 15시 예매 남산예술센터 기획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회 문의 02.758.2150 티켓 전석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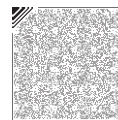
빨간 피터들

안무가 안은미 뽁뽁머리 안무가,

펼떡이는 삶을 몸짓으로 기록하다

안무가 안은미는 한국 무용계에서 가장 독특한 인물이다. 뽁뽁 짚은 민머리에 오색찬란한 의상, 주렁주렁 매단 액세서리들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범상치 않은 외모 때문에 언뜻 '센 언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특유의 재담을 풀어놓으면서 '우하하' 웃을 땐 동그란 얼굴이 동자승처럼 변한다. 그가 지나다니는 곳마다 묘한 에너지가 뿌려진다. 그의 춤도 그렇다. 그의 작품에는 극적인 색채와 유머, 상상력과 창의성이 넘실댄다. 그런데 이상하다. 밝디 밝은데 웃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가슴 한구석이 빠근해지기도 한다. 이런 묘한 신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하고 있다. 그는 최근 세계 현대무용가들의 성지로 꼽히는 프랑스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의 상주 예술가로 선정되며 무용계를 놀라게 했다. 우아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 대신 안은미컴퍼니 연습실 근처의 시끌벅적한 횡집에서 그를 만났다.







틀도, 공식도 없다... 자유인 안은미표 '북한춤'

안은미는 무용계의 틀을 깨는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으로 세계무대에서 주목받는다. 그의 작품은 소재와 형식, 내용에서 특정한 공식이 없다. 최근에는 <안은미의 북한춤>(6월 1일~3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이란 작품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분단의 시간이 70년 남짓 흐르는 동안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지만 전혀 다른 궤적을 걸은 남과 북의 몸짓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마련한 무대다. 최근 남북 해빙 무드에 맞춰 급히 마련한 '반짝 공연'이 아닐까 하겠지만 안은미가 북한춤에 관심을 둔 건 수년 전부터다.

“제가 북한춤을 춘다니까 사람들이 ‘역시 안은미는 진짜 빠르다’고 그래요. 근데 우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거든요. 제가 남북정상회담이 열릴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공연을 열게 됐죠. 덕분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다 운명이라니 해요. 하하.”

파격과 도전의 안무가로 불리는 그에게도 북한춤은 미지의 세계였다. 유튜브, 월북 무용가 최승희 모보집 <조선민족무용기본>(1958) 등을 뒤졌고, 북한에서 무용 교육을 받은 재일 무용가 성애순 씨를 초청해 춤사위를 직접 익히기도 했다.

그는 “북한춤은 발이 굉장히 빠르고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척추를 꼿꼿이 세우는 동작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굿거리·휘모리·자진모리장단의 음악을 쓰니까 금방 익숙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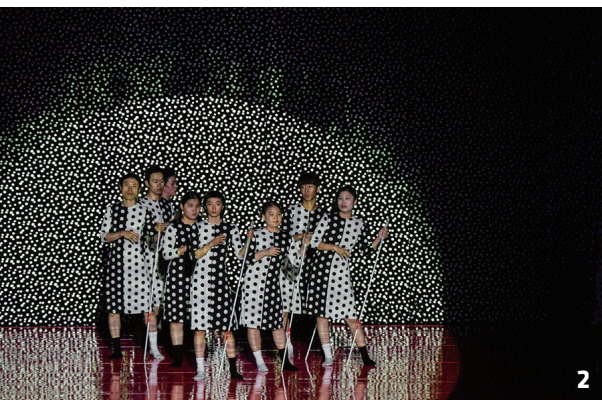
부분이 있어요.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바로 춤이죠.”

그의 말대로 이번 작품은 특정한 북한춤을 재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리를 곧게 펴고 열을 지어 행진하는 북한 군인들을 연상케 하는 춤부터 군중 무용처럼 모두가 따라 할 수 있는 쉽고 반복적인 동작, 알록달록 유쾌하게 재해석한 한복 의상들까지 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 속에 스며 있는 다양한 습관과 몸짓을 춤 속에 녹였다.

그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남과 북의 몸짓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북한 사람들만이 유지해온 움직임은 무엇인지, 그것이 남한 무용수에게 어떻게 체화되는지, 남과 북의 몸짓이 만나면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탄생하는지 등을 실험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저씨·할머니·장애인들과 함께 춤을... 춤을 넘어 '몸의 인류학'으로

늘 파격적이고 색달라 보이지만 그의 관심은 이렇듯 사람과 사회, 삶 속에서 우리나라의 몸짓을 기록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그는 우리 몸과 삶에 쌓인 흔적을 춤으로 승화시킨다.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만난 할머니들의 즉흥 몸짓을 안무, 촬영, 기록한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2011), 10대 청소년들의 춤을 내세운 <사심 없는 댄스>(2012), 평범한 대한민국 남성에게 초점을 맞춘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2013) 등 '몸 시리즈' 3부작이 대표적이다. 특히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는 지금까지도 해외무대



- 1 <대심(大心)댄쓰>.
(사진 촬영모)
- 2 <안심(安心)댄쓰>.
(사진 촬영모)
- 3 <안은미의 북한춤>.
(사진 제공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



3

로부터 러브콜이 이어지는 수작이다. 안은미는 “할머니들의 막춤은 단순한 막춤이 아니라 그들의 100년간의 몸의 역사가 담긴 근대 민속 무용”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나간 거죠. 찍는 과정에서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고 많이 깨달았어요. 평평 울면서 촬영했어요. 춤 안에 한 사람의 삶이 다 드러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을 스캔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춤에 모든 게 다 녹아 있으니까.”

소수자들이 지닌 아름다움을 조명하는 시리즈도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한 <안심(安心)댄쓰>(2016), 저신장 장애인 무용수들과 함께 작업한 <대심(大心)댄쓰>(2017)를 공연했고 성(性) 소수자와 함께하는 <방심(放心)댄쓰>도 내년께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2020년에는 2000년에 태어난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20년간 몸에 쌓아온 특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작년 9월에는 군대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들을 무대에 세웠다. 군에서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무대 위에서 한없이 북을 두드리고 아들을 그리는 춤을 쳤다. 이들의 한 맺힌 움직임은 객석을 내내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결국 그의 작업은 춤을 넘어 ‘몸의 인류학’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네 농축된 삶이 한바탕 터져 나오기에 그의 작품에는 신명도, 익살도, 눈물도 있다는 평을 듣는다.

뉴욕 누빈 뽀뽀머리 동양인 무용가

안은미의 트레이드마크는 역시 뽀뽀머리와 현란한 색상의 패션이다. 그는 언제부터 민머리로 지냈을까.

“1991년부터 머리를 밀고 다녔으니까 오래됐죠. 그보다 훨씬 전부터 밀고 싶었는데 조금씩 짧게 자를 뿐 용기를 못 냈어요. 한국에서 머리를 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머니 역시 ‘여자는 예뻐야 한다’는 옛날 생각을 가진 분이셨고요. 머리를 미는 것은 그러한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어요. 근데 밀고 나니 또 너무 어울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하.”

그의 패션도 마찬가지. 그의 의상은 무지갯빛 원색부터 형광색까지, 뽀뽀머리부터 꽃자수까지 대담하고 독특하다. 그러나 그는 그저 “예뻐서 입는다”고 설명한다. ‘괴짜 무용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는 이화여대와 동 대학원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미국 뉴욕대 대학원에서 유학했다. 소위 정통 코스를 밟은 셈인데 그는 그 안에서 튀는 학생이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제 첫 개인 발표회는 ‘적어도 안무는 이래야 한다’는 당시 무용계 관습에 대한 반항이었어요. 그 고민을 대학 시절 4년 내내 했습니다. ‘안무란 무엇이다’란 무용계 관습들에 전혀 동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여성학, 심리학, 미술사 같은 과목들을 찾아 들었죠. 당시 무용계는 서구에서 들어온 테크닉을 따라 하는 데 급급했어요. 전 의문투성이였어요. 그럼 그 테크닉이 안 되면 춤을 못 추나, 서양에서 들어온 테크닉이 우리 몸에 맞나, 나처럼 팔다리가 짧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죠. (웃음)”

그는 어떤 움직임과 몸에 ‘정답’을 설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팔다리의 길이에 아름다움의 기준을 두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팔다리의 길이가 아닌 운동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길면 긴 대로 서글프고 짧으면 짧은 대로 예뻐 수 있게요. 무엇이 예쁘고 좋은 것인지를 평가할 권한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죠. 전 제 짧은 팔과 다리로 내 나름의 운동성과 행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야 남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춤이 정말 재밌고 즐거운 거라고.”

그래서 그는 1992년, 30살에 뉴욕으로 떠나는 모험을 감행했다. 그는 “남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루저’가 될 것 같은 두려움, 그걸 따라야 한다는 욕망이 자랄 것 같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



는 뉴욕으로 도망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던 두려움, 욕망이 참 싫었는데 한 번에 버리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 집을 떠나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가출하듯 뉴욕에 갔던 것 같아요.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춘년’이 일단 뉴욕으로 갔어요. 이미 석사를 했지만 다시 뉴욕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았어요. 초반엔 일부러 한국 사람도 안 만나고 정말 한가하게 지냈어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절 객관화하는 데 도움을 주더라고요.”

뉴욕에서 그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뉴욕에서도 그는 뛰었다.

“동양에서 왔다고 하면 인도의 명상, 일본의 부토(일본 전통극 노와 가부키를 서양의 현대무용과 접목해 만든 춤) 같은 춤을 떠올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그렇게 명상하고 고요하게 살던가요. 난 그냥 내 방식으로 춤을 춰야겠다 생각했어요. 그게 외국 친구들이 보기에 그렇게 웃겼나 봐요. 머리는 뻑뻑 밀고 나이도 많은데 너무 철딱서니 없고 너무 명랑하고, 학교는 제 목소리 때문에 떠나갈 것 같고, 부잣집 딸도 아닌데 어찌나 당당한지. (웃음) 친구들이 제 작품을 정말 좋아했어요. ‘동서양의 이 신선한 조합은 뭐지’ 싶었나 봐요. 동양적인 것 같은데 아방가르드하고, 미니멀한 것 같지는 않은데 동작은 많지 않고, 근데 그 안에서 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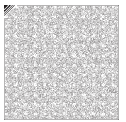
도 치고 불이 붙고요. 무용수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의상을 입혀주니까 좋아 죽고, 제가 수공예로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어 입혔거든요. 하하.”

그는 1998년과 2002년에 두 차례 뉴욕문화재단 안무가상을, 1999년에는 맨해튼예술재단 안무가상을 받았다. 그즈음부터 한국에서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무용계의 모난 돌이자 이단아였던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2000년 대구시립무용단장으로 한국에 복귀했다.

“인생이 웃겨요. 나이도 어리고 타 지역 출신에 머리는 뻑뻑 민 제가 전형적인 공무원 사회에 진입한다는 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죠. 딱 1년만 해보자고 시작했는데 작업이 너무 즐거워서 총 3년 7개월을 있었어요. 무용단의 서열을 없애고 무대와 의상에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결과야 뭐 짹짹 들어찬 관객이었죠.”

돈 없으면 금니 팔고, 공연장 없으면 마당에서

“우주가 은미(그는 자신을 자주 이렇게 부른다)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를 보면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다. 그의 극단적 낙관주의는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하고 기분 좋게 한다. 그는 “가진 게 없다 보니 상상력이 ‘만땅’



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싶어서 아닐까요. 풍족하지 않으면 머리를 수십 번 굴리게 돼요. 예전엔 돈이 없으니 제가 수공예로 옷을 만들어 무용수들에게 입혔는데, 그게 ‘오투퀴르’(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제작된 고급 맞춤복) 아니겠어요. 대학 시절 무대 세트를 만들기 위해 신촌 일대 중국집을 다 돌아서 나무젓가락을 협찬받은 적도 있죠. 한 곳당 나무젓가락 10개씩을 받아서 설치예술 비슷한 걸 했어요.”

현재도 이와 같은 낙관주의는 유효하다. “쫄 것 없어요. 돈이 부족하면 금니 팔면 되고, 공연장을 못 빌리면 마당에서 하면 돼요.” 그는 결혼한 적은 없지만 사랑은 ‘응단폭격처럼’ 했다고 한다.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하면 됐지, 왜 그 사람의 마음까지 강요하나요. 뭐가 되고 싶다, 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면 세상은 전부 다 내 것이예요. 우주는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의 춤 역시 수강료를 내야 하는 무용학원이 아닌, 끝없는 상상의 세계에서 먼저 시작됐다. 그는 5살 때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한국무용 전공생들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고 춤을 춰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린이가 현실에서 본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었다. 마치 달나라로 갈 수 있는 판타지처럼 느껴졌다. 무작정 그 언니들을 쫓아서 들어간 무용학원. 돈을 내야 이 학원에 다닐 수 있다는데 집안의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못했다. 그러나 5살 꼬맹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하니 일단 나 혼자 주고 있어야지. 저기 갈 때까지 혼자 잘 놀고 있어야지.’ 그렇게 그는 모노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쓰듯 홀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상한 비현실에서 둥둥 떠다니는 아이”로 기억했다. 7년을 기다린 끝에 무용학원 수강료 4,000원을 받게 된 그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줘도 잘 안 봤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만 보고 또 봤죠. 너무 좋아서, 연습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워서. 7년을 기다려온 움직임인데 왜 안 그랬겠어요.” 그는 “가난은 불편함을 줬을 뿐 나를 좌절시키지는 못했다”며 “그것을 어떻게 딛고 일어날 것인지가 내 화두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파격보다 자유… ‘안은미식 축제’에 초대합니다

그는 오늘도 뻘한 춤, 죽어 있는 춤을 거부한다. 그는 “일부러 독특함을 만들고자 한 적은 없다”고 말하지만 춤추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태도는 명확히 갖고 있다. 그가 말한 원칙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대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돈이 없을수록 돈을 세게 써야 한다”, “작품을 만들 때 의상은 언제나 새 옷이어야 한다. 춤은 잔치와 똑같아서 식은 음식이 나오면 안 된다”, “사람을 사랑할 때는 뼈까지 고는 마음으로, 춤을 출 때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이런 원칙은 결국 한 가지 목표로 통한다. 자신을 찾아오는 관객들에게 ‘안은미식 축제’를 선사하고 싶다는 것. 그가 생각하는 춤은 신을 만나게 하는 매개다. 온 우주를 여행할 수 있게 하는 판타지 구름이다.

“춤의 원형을 떠올려보세요. 원시 시대 때 사냥 가기 전에 힘을 내기 위해 춤을 쳤어요. 추울 때, 무서울 때, 제사를 주관하며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른 존재가 될 때 춤을 쳤습니다. 제 공연을 보는 관객도 여기에서 저기까지 보내주고 싶어요. 저는 정말 원시적인 아이디어로 무대를 짜요. ‘불을 밝혀, 피부가 껍질까지 보일 거야’, ‘일단 뛰어, 피가 돌 거야’ 하는 식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공식을 만드는 순간부터 춤이 재미없어진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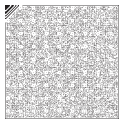
그는 그렇다고 자신의 작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냥 내 것을 할 뿐”이라고 한다. ‘이 작품이 성공할까? 표가 잘 팔릴까?’ 이런 생각도 안 했다. 그는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고 발표한다. 자신을 ‘다산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실제 그가 보유한 레퍼토리만 150개가 훌쩍 넘는다.

“제 작품이 완벽하다거나 명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전 그냥 제가 궁금한 걸 무대에 올릴 뿐이에요. 헛소리를 많이 하다 보면 말이 되는 것들도 나오잖아요.” ‘정답 없음’이란 기준은 자신뿐 아니라 작품을 보러 오는 관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연 보다가 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럼 ‘잘 잤네요’라고 해요. 공연을 꼭 봐야 합니까.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죠. 재우는 것도 내 재주입니다. (웃음) 공연을 보고 본인이 제대로 본 게 맞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죠. 전 그럼 ‘알아서들 보세요’라고 해요. 노예들도 아닌데. 그냥 춤이란 판타지 구름을 타고 둥둥 날아오르면 돼요.”

마지막까지 이보다 더 유쾌할 순 없다.

글 임수정 연합뉴스 기자 · 사진 백중현 · 사진 제공 안은미컴퍼니





조아제약 조성배 대표이사

건강한 기부에는 끝이 없다

좋은 친구는 누구에게나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다. 조아제약은 그런 친구처럼 다른 파트너에게도 알리고 싶은 서울문화재단의 오랜 후원기업이다. 그도 같은 마음인지 그들의 파트너에게 재단과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데 적극적이다. 한국 축구의 별 박지성 선수를 장애아동 창작지원사업 참여 아동들에게 소개했을 때가 그랬다. 동명아동복지센터 같은 후원기관과 재단과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관계를 넓히는 데도 관심을 갖는다. 좋은 매개자가 되어 프로젝트에 정성을 쏟는 잠실창작스튜디오 <프로젝트 A>의 든든한 후원인, 조아제약 조성배 대표이사를 만났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회사의 메세나 활동

기업명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메디팜'이라는 약국 프랜차이즈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건 몰랐습니다. 간략한 기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988년 부산에서 시작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며,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건강하게'란 기업 이념 아래 의약품 개발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1994년 경남 함안에 생산 공장을 준공한 이후, K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적격업체 승인을 받았고, 제약업계 최초로 ISO 9001(국제표준화기구 품질 기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등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약국 유통 체인 메디팜(주)는 일반의약품 유통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아바이톤, 잘크톤, 가레오, 헤포스 등 130여 가지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코스닥에 등록될 정도로 공신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뻔한 질문일 수 있지만, 제약업계에서도 눈에 띄는 CSR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미술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 하지 못하는 장애아동들이 많다는 사실을 접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마련해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잠실창작스튜디오의 <프로젝트A>는 예술가와 장애아동을 멘토-멘티로 매칭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예술가와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결(link)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신가요?

'건강'이라는 제약업계의 철학을 담아 건강을 소중히 지키고자 하는 이들,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회사 제품을 활용하여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그들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아제약 제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체감도는 어떤가요?

임직원들도 회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문화재단과의 프로젝트 결과전

시라든가 관련 행사에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명아동복지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어, 아이들과 음식을 만들거나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후원 외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파트너십, 조아 제약 프로야구 대상, 라오스 국가대표 야구단 후원, 바둑 국가대표 후원 등 유독 스포츠 관련 마케팅이 돋보이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제약업계의 특성상 '생명 존중'을 근본이념으로 삼는데,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스포츠와 일맥상통합니다. 또 역동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여기서 파생되는 이점들이 마케팅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자 합니다.

기회가 이어지는 '가능성'의 프로젝트 'A'

2013년부터 6년간 인연을 맺고 있는 <프로젝트A>는 오랜 파트너십으로 해마다 짜임새 있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담도담 프로그램' 등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프로그램 소개와 더불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장애아동들의 독특하고 매력 있는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그들이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에 의미 있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기로 참여했던 신동민, 한승민 멘티들이 어엿한 예술가로 성장해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그동안 진행한 후원 프로젝트의 초반 5년이 태동기였다면, 이제는 보다 성숙한 단계로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7월에는 장애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프로젝트도담도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가지지 못한 장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꼭두, 찰흙, 종이공예, 플라워 워크숍을 진행하고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술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도전을 통해 경험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프로젝트A>는 예술적인 창의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일상에서 영감을 얻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또 일상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고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마음이 가벼워지고 업무에 대한 새로운 영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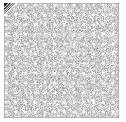
가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시는데, 임직원 가족들에게는 어떤 CEO로 남고 싶으신지요?

조아제약의 모든 임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조아제약 직원이라는



1 <프로젝트A> 멘토 정경희, 멘티 김건우, 조아제약 후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앰버서더 박지성.
2 2018 <프로젝트A> 멘토-멘티 결연식.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직원 가족들도 우리 가족이 일하는 회사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고, 그런 회사의 CEO로 남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프로젝트A>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장애아동들만의 특별한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여 성장시키고 예술가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A> 사업이 대외적으로 더욱 알려져 많은 장애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매해 재능기부로 아동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멘토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멘티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글 황현정 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 · 사진 제공 조아제약,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장애아동 시각예술 멘토링 사업 <프로젝트A>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만 16세 미만 장애아동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예술가로 육성시키는 장애아동 창작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A>의 'A'는 예술(art)과 가능성(able)을 상징한다. 시각예술 분야 멘토와 함께 1:1 멘토링으로 5개월간 창작 활동을 진행하고, 완성된 작품을 전시, 아트워크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2013년 조아제약과 서울문화재단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6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명의 멘티 아동이 함께했다. 멘토 아티스트로는 한국화가 라오미, 팝아티스트 염승일, 큐레이터 이현주, 서양화가 정경희, 최윤정 등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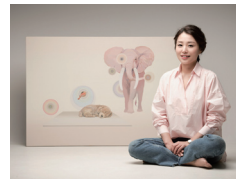
※프로젝트 도담도담 <프로젝트A>와 연계한 한국메세나협회 지역특성화 매칭 지원금으로 여름방학 기간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이 참여하는 예술 창작활동 프로그램, 7~8월 2개월간 꼭두, 찰흙, 종이공예, 플라워 등 총 12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담도담'은 '아이들이 별 탈 없이 자라는 모습'의 순우리말로, 모든 장애아동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술창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작 어려움을 의미한다.

2018년 신규 멘토 참여 소감



염승일 작가(팝아티스트)

"올해 처음 멘토로 참여하면서 만난 멘티 하윤이와의 미술 시간은 저의 창작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멘토링이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에 더 정성을 쏟을 생각입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준 잠실창작스튜디오에 감사드립니다."



최윤정 작가(서양화가)

"멘토링을 진행할수록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술이라는 언어로 멘티 재민이와 나누는 상호작용의 크기가 커질수록 만족감도 커집니다. 멘토링을 통해 재민의 내재된 예술성이 잘 발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내기 할까요
끼리끼리
내부자에서
서로서로
기부자로

"우리 내기할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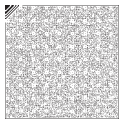
이익 앞에서 끼리끼리 뭉치고 이익이 사라지면 발뺌하는 '내부자'와 어둠을 내몰고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해 서로서로 돕는 '기부자'입니다. '내부자들'의 끼리끼리 문화에서 '기부자들'의 서로서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캠페인입니다.

서울문화예술교육 콜로키움 〈서울, 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 1차

서울문화예술교육의 진단과 과제



2018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를 전략으로 내세운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17개 광역시도는 이 계획에 근거해 올해 말까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서울시,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서울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서울의 문화예술교육을 진단해 방향을 모색하고, 예술가 교육, 민간과 공공의 협력 방안, 지역화 전략을 논의하는 콜로키움을 4차례 개최한다. 지난 5월 18일 열린 첫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서울의 문화예술교육에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했다.



사회 김세훈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교수
토론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최보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여세진 문화놀이터 액션가면 대표
일시 2018년 5월 18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서울역 상상캔버스



김세훈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교수

김세훈 첫 번째 콜로키움은 총론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첫 논의는 지자체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추구한 목표와 어려움에 대해 들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목표와 내용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서울의 문화예술교육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왔는지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답이다

여세진 저는 1992년에 데뷔해서 배우를 하다가 2000년 교육을 시작해 2004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객 개발이 목적이었는데 교육을 시작한 후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지금은 학교 안팎의 아이들부터 교장선생님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기획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들었어요. 기획자들은 하는 일에 비해 보수를 너무 적게 받아요. 지원제도의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예산을 양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은 ‘왜 하는지’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기획자들이 독자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재밌는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김세훈 단체들이 사업을 왜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세진 단체들의 정체성은 사업 종료 시점에 많이 흔들립니다. 지원사업의 심사 지표와 모니터링 지표가 달라서인데요. 특히 신규 단체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요. 단체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 휘둘리고 잘하다가도 모니터링을 하면 원점으

로 돌아가더라고요. 목표는 단체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이자 도착 지점이잖아요. 프로그램을 병렬식으로 하다 보면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 수 있어요. 문화예술교육자들은 병렬식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김세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이제는 지원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원기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성과를 원하는지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경우 성북문화재단은 지원기관보다 실행기관에 가깝습니다. 기초문화재단이라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그중 청소년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기초의 현장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앙에서 말하는 지자체는 보통 광역이고 기초는 빠져 있어요. 지원기관은 지원에만 충실해야 하는데 자꾸 성과를 가져가려다 보니 서로 경쟁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에서는 주체 발굴이 중요한데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900여 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역에 내려오면 개별 단체가 받아서 그 프로그램만 합니다. 지역에서의 파급효과,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강사 네트워크 등에 대한 고민은 찾기 힘들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좋은 사업, 강사, 기획, 프로그램이 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성북구는 서울시교육청 사업으로 3년 동안 동구여중에서 ‘푸른누리마을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재단은 교사, 학부모, 교육청, 기획자, 강사, 지역을 연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성북에는 동네 교육을 고민하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문화예술교육만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이슈, 교육 현장과 맞물려야 합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가들이 ‘마을 온 예술’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사업에 조합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좋은 정책과 전문가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역을 깊이 들여다보고, 광역

에서 할 일은 무엇이며 기초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배제의 언어에서 포용으로

김세훈 지금은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추상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지원 프로그램들은 그 목적의 범위 안에 있지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왜 화두가 되었으며 법제화해 지원을 시작했는지, 목표와 방향은 무엇이고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살펴보아야 논의를 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보연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정책에서 주변 이슈였다가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전에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성장에 집중하다 국민의 문화적인 삶에 정책적인 관심이 생겼고, 보다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접근성과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배경이었어요. 문화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수동적으로 향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접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창의성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고 ‘창의 한국’으로 나아가려면 문화예술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이중적인 이니셔티브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나온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문화역량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요. 문화예술교육을 ‘모든 국민의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현하는 방식에 다양한 견해가 있었음에도 개념적인 혼란이나 목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005년경 예술교육과 관련해 많이 나온 비판 중 하나가 ‘주입식 교육’이었어요. 전문적인 예술교육에 대한 반감, 강의식 기능 중심의 교육과는 다른 전인적인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답론이 강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체험 중심이고 기능 중심은 지양한다’가 국가 지원사업의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구조화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것은 기능교육이니



권정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문화예술교육은 아닌지, 예술강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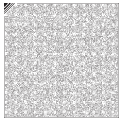
김세훈 기능, 암기, 강의 중심의 교육은 안 된다는 규정은 하지만 무엇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이야기는 없는 듯이 보입니다. ‘기능과 암기 중심만 아니면 다 문화예술교육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보연 지금까지 정책 현장에서 말해온 것은 ‘배제의 언어’였습니다. 이전 교육과의 차별화가 필요했을 수는 있어요. 2005년에는 열려 있고 유연한 형태의 교육을 창의적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의제가 강했기 때문에 설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배제의 관점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교육에 참여하고 실행하는 주체 입장에서 배제의 관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이론과 기능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관점을 좀 더 포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문화예술교육의 딜레마, 혹은 기회

김세훈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보다 먼저 시작했는데요. 재단에서는 ‘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구분하는지, ‘미적 체험’의 개념과 서울문화재단에서 보는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미혜 저는 문화예술교육을 2010년부터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야의 지원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만들어졌는데요, 재단은 2004년부터 예술가 지원 영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술교육’으로 보았죠. 재단의 모든 지원사업은 일차적으로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문화영역으로 확산하는 ‘예술교육’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예술가의 것이죠. 즉, ‘예술교육’이라고 말할 때는 ‘예술가에 의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예술가의 작업과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들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미적 체험은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과 실천적 상상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예술교육 활동이나 작업을 하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이 재단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지원은 하지만 실행은 기초에서 지역에 맞춰 자유롭게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김세훈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담론은 암기와 기능 중심이 아닌 체험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가가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작업을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접근의 차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세진 현장은 규정과 상관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지원금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나 예술작업으로 하는 소통일 수 있어요. 얼마 전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10대부터 60대 시민 20명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알기 전과 후의 달라진 점을 물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에는 작품을 보고 아무렇게나 상상할 수 있었는데, 교육 후에는 자유로운 상상이 사라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문화예술교육 초창기에는 예술의 힘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한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라기보다 단체들이 정책 이슈를 해결하는 수행자 역할을 하고 있죠.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단체들은 지원제도에 맞춰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정책에 투입되는 예술가와 대상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정의 내린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고 있지만, 원점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훈 문화예술교육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여세진 문화예술교육이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에 놀랐고요. 이것이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문화예술교육이 선사하는 무형의 것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배려를 익히고, 자신감을 얻고, 자아를 찾거나 공동체의 감수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책은 그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단체나 예술가가 정책에 끼워 맞추다 보니 이질적인 옷을 입고 ‘흉내 내기’만 합니다. ‘흉내 내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을 하고 싶은 단체들에게는 불편한 제도인 거죠. 단체 스스로 의제를 주도하는 자율 양식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창조적인 작업과 생산성으로 이어질 겁니다. 단체들에게는 자신을 찾는 과정이며, 이는 수혜자에게 돌아가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김세훈 공공지원의 영역에서 활동하면 공공의 규정이나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문화예술이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겠죠. 정책이나 제도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제약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개인이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가능성은 문화예술교육에 있다고 했는데요. 이를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만의 접근 즉 방법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인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사실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을 규정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미혜 시민들이 예술가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예술가의 작업을 시민들이 경험해보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죠. 저는 ‘문화예술교육이란 어떤 것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문화교육이든, 예술교육이든, 문화예술교육이든 시민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 체계와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재단에서도 미적 체험 예술교육, 통합예술교육, 최근에는 인문예술교육까지 하고 있지만, 이는 재단의 한정된 자원 아래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 방법입니다. 국가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음악을 예로 든다면 현장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기능교육인데, 이러한 기능교육은 정책영역에서 배제되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재단에서 지향하고 추구해온 방법론은 다르게 보는 방식에 익숙한 예술가

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재단은 이러한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을 추구합니다. 대상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에는 통합적인 방법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이 유효하다는 것을 현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예술작업을 왜 하는지, 작업과정에서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는 인문예술교육을 하며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세훈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규정하게 되면 그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배제하게 되고, 특정 방법론에만 구속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서울은 ‘예술가처럼 생각하기’라는 방향을 향해 걸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최보연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지만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지향점이 최종 수혜자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강사’ 지원사업이죠. 그 용어로 인해 강사와 예술가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초점을 잘못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 주체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향후 정책의 일환인데도 예술가와 창작지원의 일부로만 재생산되어 왔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이 ‘인간의 변화’라면 단시일 내에 파악하기 힘들 텐데, 지속적으로 추적해 정책의 성과로 잡는 부분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선적인 예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에도 강사 수와 학교 수만 나오고 수혜자 수는 추정만 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질적인 변화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거나 어려워서 의도적으로 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도 전달하는 주체에만 초점이 모이고, 수혜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세진 장소와 대상의 접근성이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 지역 내에서 장기간 작업한다고 해도 지역으로 회귀하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1년짜리 단발성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인의 변화를 측정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공간입니다.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숨어 있거든요. 그들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어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어린이날, 놀이터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그냥 한 번 놀아보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만난 환경미화원들은 놀이터에서 다시 만나길 원했구요.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갈 길

김세훈 이제 서울의 문화예술교육을 진단해보고 성과와 과제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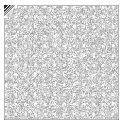
권경우 서울문화재단은 일찍부터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해왔고 시스템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예술가교사(TA)에 섬세하게 접근해왔고요. 실질적인 고민을 함께하고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문화예술교육이 수혜자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강사나 기획자, 종사하는 주체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접근과 재교육, 네트워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치구 안에서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교육, 도시재생, 마을축제 등의 영역을 서로 뺏기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지역은 이를 통합해 공통의 의제로 놓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공간에서 다른 대상과 하려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은 자치구들과 함께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세진 숨은 수혜자와 장소를 찾고 대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지가 중요합니다. 단체는 편한 대상을 선정하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지역도 잘 알 수 있고요. 또한 단체의 역량과 경력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력 단체도 신규 단체와 똑같은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경력이 많을수록 응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지원제도 안에서 해소할 수 없다 보니 떠납니다.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계속 관리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행도 중요하지만 계획 단계를 지원하면 단체도 준비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도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최보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최보연 저는 서울 문화예술교육을 재단보다 서울시 차원의 넓은 의미로 봤습니다. 서울시의 학교 예술강사를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150억 원인데 그 절반 이상을 서울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미적 체험이라는 철학적 기반을 목표로 예술교육의 방법론이나 지향을 견고히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형 예술교육을 넘어서는 거시적인 지향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 문화권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시민이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창작, 향유, 교육하는 내용이 있는데, 작년 개정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는 이 부분이 축소되어 들어간 것 같아요. 문화예술교육을 근본적인 문화권으로 인지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민이라는 수혜자 입장에서의 지향점을 고민해야 하고요. 서울시에는 무궁무진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하는 것도 문화예술교육 자원이고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볼 수 있거든요.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교육 자원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영역도 포함해 포용적인 관점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김세훈 여러 가지 서울문화예술교육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서울의 문화예술교육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재단의 입장에서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임미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세진 대표님이 공공지원 설계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어디까지가 공공의 영역이고 민간의 영역인지 나눌 수 없어요. 공공의 지원정책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화예술교육을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영역이 분절적인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사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형 모델을 개발하고 잘 수행하는 게 지금까지의 목표였다면, 그 다음 단계로 서울형 모델이 일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김세훈 '서울형'은 예술가가 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예술가의 경험을 일반인과 공유하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임미혜 덧붙이자면 서울문화재단은 하나의 장르로 접근하지 않고 통합예술교육을 합니다. 예술가교사(TA)는 장르별로 선발하



여세진 문화놀이터 액션가면 대표

지만, 학교 수업에 들어갈 때는 다른 장르와 팀티칭을 합니다.

김세훈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혼란스러워 하지만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은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기획자와 경력 단체에 대한 고려와 서울시민의 문화적 권리도 생각해봤습니다. 문화예술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이라는 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해야 하는 과제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 분들의 의견을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최보연 서울은 또 다른 중앙일 수 있습니다. 향후 서울의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재단 등과의 관계성, 서울 내 다양한 문화예술자원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선제적이지 못하게 정책 관점을 포지셔닝하면 좋겠습니다.

권경우 예술가이기 이전에 사람인데, 대부분의 정책은 이 사람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지역과 마을이 변화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면 좀 더 실효성 있고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여세진 문화예술교육의 대상, 단체, 재단 모두 중요합니다. 원하는 방향도 같습니다.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의 판로를 여는 작업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임미혜 지역이면서 동시에 중앙의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갖는 서울의 딜레마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지가 숙제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다른 영역보다 이해관계가 넓고 복잡한데요, 이 체계와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어떻게 찾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답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훈 이번 콜로키움이 서울의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문제의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 사진 서울문화재단



벽화 전문 사회적기업 '데이그래피' 박희정 대표

유대하며 성장하기

박희정 대표가 이끄는 데이그래피(Day-graphy)는 2014년에 팀을 결성하여, 2015년 1월 예비사회적기업이 됐다. 청년들의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기 쓰기 어플리케이션과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도장 등을 만들었고, 청년모임과 청년공간 운영 등 다양한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해왔다. 지금은 벽화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

청년모임을 할 때의 일이다. 한 기수당 평균 100명의 회원들로 운영되는 독서토론 모임 등 3개의 청년모임을 만들어 운영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진로와 꿈을 사회에서 원하는 틀에 맞춰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돌볼 수가 없게 되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했다. 이 모임에서 같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며, 모임이 자존감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과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결국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이 친구들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임이 나에게 큰 변화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나가는 듯했다. 한편으로는 모임을 운영하면서 정들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일이 힘들어졌다. 나도 '좋은 일자리'를 만나 이 모임을 졸업하고 싶어졌고, 또 간접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임에서 만난, 작가를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친구는 작업실 임대



- 1,2 의뢰받은 벽화를 작업 중인 데이그래피 직원들.
- 3 데이그래피 직원들.
- 4 박희정 대표.
- 5 데이그래피가 작업한 촉발가게 벽화.

료와 재료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나는 7년 전부터 벽화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벽화를 그려 번 돈으로 이것저것 사업을 시도하면서도 생활할 수 있었다. 작가를 꿈꾸는 친구들을 내 작업에 불러 함께 일을 시작했다. 2014년부터 쌓은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벽화 그리는 일을 회사 차원에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자존감에 흠집 내지 않는 회사

데이그래피는 대표인 나를 포함하여 총 9명이 운영하고 있다. 사무팀과 현장팀으로 나누어 일하며, 모두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라 큰 작업이 들어오면 전 직원이 함께 작업한다. 사무팀은 주로 디자인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현장팀은 현장에서 벽화를 그린다. 한 달에 보통 30~40건의 작업이 있는데, 일이 들어올 때마다 사무팀 한 명과 현장팀 한 명이 팀을 이루어 해당 일을 책임지고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반적으로 일이 빠르게 돌아가며 수평적인 팀으로 작업하기에 서로 친하고 유대감이 깊다. 올해 초에는 모두 함께 뉴욕으로 일주일간 워크숍을 다녀오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이 회사가 아니었다면 회사를 못 다녔을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예술가 성향의 개성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개성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평적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일을 할 때는 프로답게, 내부적으로는 그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식이다. 이는 최대의 장점이지만, 책임과

의무에 대한 무게감이 나에게 쏠려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회사가 벌써 4년 차이고,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직원들도 반을 넘어서었다. 최근에는 3명의 신규 직원 채용도 있었다. 밖에서 보면 아주 잘해나가고 있는 듯 보일 것이다. 예술가를 회사로 만든다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내면의 기복은 심하지만 외면은 잔잔한. 데이그래피는 이러한 예술가 성향의 회사로 유지되고 발전할 것이다. 수평적 구조의 단점을 극복해 10년, 20년 후에도 회사가 존속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작은 문제 하나에도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늘 주위 사람들의 조언과 직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회사(자존감에 흠집을 내지 않는 회사)’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의 꿈은 원래 만화가였다. 하지만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은 너무 많았다. 웹툰을 짧게 연재한 적도 있었는데 일주일간 한 편을 완성하기에는 지구력이 부족했고, 혼자 작업하기에는 의지가 약했다. 데이그래피에서 만화 캐릭터 같은 개성 있는 직원들과 일하면서, 한 편의 만화를 연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작가로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뚜렷하니, 독자(고객)와 소통하며 탄탄한 스토리를 만들어나가는 것처럼 직원과 소통하며 탄탄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해결하고자 한 자존감 문제는 나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나 또한 일이 재밌고 보람 있지만 때때로 예술로 돈을 버는 것이 힘들고 불안하다. 이는 창업이나 예술을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청년모임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모두의 문제로 인식한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결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므로 유대하면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자신을 돌보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사람들과 유대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알을 깨고 나와 유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이 흘러간다. 변화를 원한다면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최선을 다한다면 흘러간 것에 대해 아쉬움은 남더라도 성장하며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글 · 사진 박희정 데이그래피 대표

삶의 미세먼지를 걷어줄
예술이 불어오기를 기대하며...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사진 조현우



정부의 '문화비전2030'과
'새 예술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예술정책은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촛불혁명의 기폭제 중 하나는 단언컨대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다. 독립 영역인 사법부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블랙리스트가 자행됐다. 이 중 가장 노골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계였다.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문화예술인들의 기대가 컸던 것은 이런 면에서 당연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새 문화·예술정책이 나오자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새 정책은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담지 못했다.

'빠르게' 아닌 '바르게' 강조했지만

보통 새 정부 출범 1년이 되면 경제·문화·외교·정치 등 각 분야에서 평가가 진행된다. 아쉽게도 문화·예술 분야는 평가할 게 없다. 출범 1년이 다 되어서야 문화·예술 비전과 정책이 나왔다. 마치 태아를 열 달간 애지중지 품은 어머니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민간과 오래 논의한 끝에 새 문화·예술비전과 정책을 발표했다. 산고 끝에 나온 새 비전과 책임인데 민간의 반응은 시원찮다.

오래 걸려서 반응이 좋지 않은 게 아니다. 많은 이들이 선거 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현 정부의 임기가 바로 시작돼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아울러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기조 공개 자리에서 한 발언이, 늦어지는 정책 발표를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이 됐다. 당시 기자회견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반년이 지나도 새 문화·예술정책이 발표되지 않자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도종환 장관은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현장 예술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나라의 향후 10년 청사진이 될 새 문화·예술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인수위원회가 있었더라도 늦어졌을 정도로 도 장관의 각오는 확고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정부가 언론을 통해 완성된 정책을 발표하고 홍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도 장관은 "기존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전문가와 연구진이 논





1

도종환 장관이 5월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플렉스홀에서 열린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발표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문체부)

2

2016년 10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 예술행동 및 기자회견'에 예술가들이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하는 방식은 지지 기반과 추진력이 약하다"며, "이제 모두가 협력해 완성된 것이 아닌 계속 진화하는 개방형·진행형 문화비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 장관은 실제로 지난해 6월 부임 이후부터 문화·체육·관광 포럼이나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10월부터는 민간 전문가와 정책 분야별 책임연구자를 중심으로 '새 문화정책 준비단'과 '새 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을 구성·운영해 '문화비전2030'과 '새 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기조를 발표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즈음이 되는 5월 16일, 문체부는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과 새로운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새 예술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심지어 현장 문화예술계로부터 '박수 칠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자율성·다양성·창의성 담은 '문화비전2030'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 일단 민관 협치 과정을 거쳐 나왔다고 하는 결과물을 살펴보자. 새 정부의 문화정책인 '문화비전2030'은 '사

람이 있는 문화'라는 기조 아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총 9가지 의제 37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9가지 의제는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 실현, 문화 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 문화지원의 융합 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추구를 골자로 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휴일을 확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해 초등학교 입학생과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를 구성하며, 최근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성차별 금지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1
송경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간사가 2017년 12월 20일
블랙리스트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
지난 2월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새 문화정책 준비단
현장토론회.
(사진 최성열)

문화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서면계약 의무 위반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속 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 문화교류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새 예술정책'

'새 예술정책'의 비전은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다. 4대 추진 전략인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예술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예술참여 확대, 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대 등을 바탕으로 8대 핵심 과제와 23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8대 핵심 과제의 골자는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 보호, 예술지원 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예술가치 중심의 창작지원,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 모두에 열려 있는 예술참여 환경 조성,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 예술의 미래 가치 확장 등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예술지원 체계의 독립

성과 자율성 제고이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의 일환이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명칭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예술지원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술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한다. 소위원회를 현장 예술인 중심으로 구성해 상시적 협치 구조를 마련한다. 사무처 간 부직의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심의 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조직과 사업 운영의 공정성·투명성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체부는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 그동안 발표한 콘텐츠·관광·체육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들을 근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





굴하고 실행해나가겠다고, 정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비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문체부인데, 자기 혁신은 없다

'문화비전2030'과 '새 예술정책'이 나온 날, 예술인들의 자율조합인 예술인소셜유니온(위원장 하장호)은 “최종 결과물이 나왔으니 박수치고 기뻐해야 할 테지만 그럴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 운영위원과 회원들이 '새 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분과 활동에 참여했음에도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다.

왜 그랬을까. 논평을 살펴보면, 문체부가 발표한 정책의 세부 전략과 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율, 상생, 복지, 융합, 창작지원 등의 사업, 그리고 '세제 혜택을 통해 문화향유를 촉진'하겠다는 정책도 같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를 자행한 적폐 정권의 정책과 다르지 않아서 비판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이전 정부들이 내세운 문화 슬로건이나 정책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은 좋은 슬로건이었고, 세부 정책 사업들은 실행된다면 많은 현장 문화·예술인에게 도움이 될 것들이었다. 다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치 이념, 돈, 권력에 휘둘린 게 문제였다. 결국 그 사업을 추진하는 철학과 가치,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이 핵심이다.

둘러서 말했지만 결국 문제는 문체부 자신에게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예술계는 지난



3
문화비전2030 체계도.
(문체부 제공)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에 블랙리스트로 초토화됐다. 청와대로부터 시작해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나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산하기관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작동 원리를 보면 청와대와 문체부가 각각 머리와 몸통이었고, 산하기관은 손과 발이었다.

그런데 문체부가 발표한 새 문화·예술정책에는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문제가 된 산하기관, 대표적으로 예술위의 독립성 강화와 기구 자체의 자율성에 대한 언급은 있어도, 정작 문체부가 시행해온 비공식적인 지휘 통제에 대한

규제는 보이지 않는다. 손발은 고치겠다고 하면서 몸통은 그대로다. 오염된 아랫물은 갈아엎는다면서 정작 오염물을 내려 보낸 윗물은 그대로 두겠다는 꼴이다.

그러니 예술인소셜유니온이 “블랙리스트를 작동했던 손으로 이제는 새로운 예술정책을 작동시키겠다는 문체부 관료의 구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아플 정도로 꼬집은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권고안을 냈고, 문체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의 행정 체계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혁신 과제를 만들어내면 된다. 현장 예술인들의 요구대로, 새 예술정책을 시작하려면 실행 주체인 문체부가 새로운 그릇이 되는 게 우선이다.

글 유연석 CBS노컷뉴스 기자

공유성북원탁회의,
제3회 국제문화상 수상

세계가 인정한 성북의 문화협치 사례

지난 5월 2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유럽회의가 열렸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180여 개국 1,000여 개의 도시가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와 분권, 지방재정, 성평등, 문화, 사회통합, 인권문제를 주 의제로 다룬다. 지방정부들이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다. 올해 유럽회의에서는 제3회 국제문화상(International Award UCLG-Mexico City-Culture 21) 수상자 발표가 있었다. 99개의 후보 도시 중 프랑스 리옹과 대한민국 서울 성북이 선정되었다.



1

공유성북원탁회의: 지역문화 거버넌스

성북은 성북구 · 성북문화재단 · 공유성북원탁회의가 공동으로 민관 참여 거버넌스를 조직하여 문화민주주의와 문화협치를 실행하고 있다. 이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완벽한 문화정책 사례”라는 찬사를 받으며 국제문화상을 수상했다.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성북문화재단 설립(2012년 9월) 이후, 새로운 삶의 원리를 고민하던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과 성북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제안해 2014년 1월 시작된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다. 지난 5년 동안 매월 스스로 ‘공탁’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53번의 모임을 가졌는데,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도 있고, 그저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인 때도 있다. 이러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모임을 ‘민관협치형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유는



1
성북구 · 성북문화재단 ·
공유성북원탁회의가
함께한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2017. 5)

2
성북구 · 성북문화재단 ·
공유성북원탁회의가
함께한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지도에 없는
문화다양성 마을로 이사
퍼레이드’. (2017. 5)



지난한 토론의 과정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자율적 활동(자발성)', '문화민주주의(민주성)', '우정과 협력(연대성)', '문화 다양성을 통한 차이의 존중(다양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운영위원은 매년 20여 명으로 구성되는데, 운영위원이 되고 싶다면 누구나 손만 들면 된다. 이렇게 선출된 운영위원 가운데 2명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1명은 추천과 토론, 투표의 방식으로, 다른 1명은 본인이라고 싶어하거나 혹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 '사다리 타기'로 뽑는다. 특별하고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다. 임기 1년(연임 불가)의 원칙을 지키며 지금까지 8명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현재 300여 명(운영위원 20여 명, 워킹그룹별 활동가 100여 명, 기관 관계자 30여 명, 모임 참여 예술가 및 주민 150여 명)이 함께 모여 서로를 '친구'라 부르며 활동하고 있다.

실험의 문화

공유성북원탁회의에서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일상적인 안건 도출과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공간 공유와 재생, 지역 축제, 예술 마을, 동네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실험해왔다. 성북의 가장 큰 축제인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을 협치형 축제 모델로 전환하고 문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제시하며 축제를 주관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또한 공간 공유와 재생



3 공유성북원탁회의가 주관한 '성북창조문화도시 기본계획 2020' 발표에 따라 지역문화정책을 살펴보고 제안하는 성북 문화예술 정책전람회. (2017. 6)

4 성북문화재단 · 공유성북원탁회의가 협력해 성북정보도서관 지하에 개관한 '천장산우화극장'. (2018. 3)

의 실험적 사례로 낯은 공공극장인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을 지역의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협치 구조를 만들었다. 방치되고 버려져 있던 미아리고개 고가 차도의 하부공간을 '미인도(미아리고개+사람+길)'라는 이름의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며 '고개장'이라는 마을장터도 운영하고 있다. 또 3년간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 성북정보도서관 지하에 방치되어 있던 180㎡ 규모의 세미나실을 '천장산우화극장'으로 만들었다.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지역 활동은 단순히 문화예술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민주주의와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새로운 지역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단위 밀착 프로젝트, 8개(14개 동)의 '예술마을만들기' 모임을 구성하면서 일상에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성북구는 이러한 문화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제정 및 위원회 활동, '성북창조문화도시 기본계획 2020' 수립 등 지역 차원의 문화행정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지역문화 거버넌스 공유성북원탁회의, 성북의 3자 문화협치 사례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국제문화상 수상은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의 변화 실험에 참여하고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창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북구 · 성북문화재단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성북구라는 지방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일상 속에서 변화의 실험을 이어갈 것이다.

(※성북구 · 성북문화재단 ·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이번 수상을 기념하고 거버넌스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성북구 문화협치의 힘, 마을자치의 꿈'이라는 제목의 공유 포럼을 지난 6월 20일 오후 4~6시,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공동 개최했다.)

글 박현진 성북문화재단 문화지역협력팀장

사진 제공 성북문화재단

남북정상회담과 '미술 정치'

역사적 순간에 그림이 있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북한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악수를 하며 새 시대를 기약했다. 국기(國旗)는 미국이 북한을 정상 국가로 승인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녀 화제가 됐다. 이 역사적인 회담의 씨앗이 된 남북정상회담, 그때의 배경은 국기가 아니라 그림이었다. 한국에서 북한 인공기 게양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통일외교부 국기를 의미 있는 그림으로 장식하는 '미술 정치'로 회담 분위기를 띄웠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주요 미술품 선정 배경을 설명할 정도로 미술품 선택과 배치에 신경을 썼다. 정상회담에 걸린 미술품들은 '환영과 배려, 평화와 소망'을 주제로 선정됐다.



남북정상회담의 숨은 공신이 된 작품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림을 화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어색함을 풀었다. 아름다운 한반도 산하를 담은 화폭은 기념촬영 배경으로도 나무랄 데 없었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림이 남북정상회담 성공의 숨은 공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당시 김 위원장은 평화의집 1층에 들어서자마자 민정기 화백의 청록빛 산수화 <북한산>에 관심을 보이며 “이건 어떤 기법으로 그린 겁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서양화인데 우리 동양적 기법으로 그린 겁니다”라고 답했다. 정확한 설명이었다. 민 화백이 2007년 그린 <북한산>은 서양 재료인 유화 물감을 사용했지만 전통 한국화의 붓놀림과 구도, 채색 등을 활용했다. 가로 452.5cm, 높이 264.5cm에 달하는 대작이다.

남북 정상은 이 그림 앞에서 악수하면서 기념

촬영을 했다. 청와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는 북측 최고 지도자를 서울 명산으로 초대한다는 의미로 이 작품을 선택했다. 서울에 있는 산이지만 이름은 ‘북한산’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조선 진경산수화의 재해석에 몰두해온 민 화백은 장쾌한 북한산 산세를 화폭에 펼쳤다. 지도 제작자에 가까운 정도로 지형 등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동시에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의 것들을 함께 표현했다. 경기도 양평군에 살고 있는 그는 전문가와 함께 북한산을 두 달 넘게 답사해 그림을 완성했다.

남북 정상은 평화의집 2층 회담장에 걸린 신장식 국민대 교수의 대작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 앞에서도 악수를 하면서 기념촬영을 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북한 금강산을 회담장 안으로 들여 이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소망했다. 이 작품은 가로 681cm, 세로 181cm에 달하는 푸른빛 화폭에 북한 금강산의 절경



을 담았다. 신 교수는 수묵화의 선(線)과 민화의 색채, 현대 풍경화의 감각을 융합해 표현했다. 2001년 직접 금강산에 가서 상팔담을 스케치하고 사진 2,000장을 찍은 후 혼신을 다해 완성한 이 작품을 작업실에 고이 간직해왔다고 한다.

회담장 입구 양쪽에는 이숙자 작가의 <청맥, 노란 유채꽃>과 <보랏빛 엉겅퀴>가 배치됐다. 한 반도 보리밭 풍경을 담은 두 작품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

회담장 뒷벽에는 김종만 작가의 훈민정음 작품 <천년의 동행, 그 시작>이 걸렸다. 세종대왕기념관이 소장한 <여초 김응현의 훈민정음>을 재해석한 이 작품은 남북한이 공유하는 한글이라는 소재를 통해 남북이 한민족임을 강조했다. 국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꿈꿨던 세종대왕의 정신을 남북 지도자에게 당부하기 위해 김정숙 여사가 골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이 작품을 설명하며 두 정상의 이름 첫 글자 ‘ㄹ’과 ‘ㄱ’을 각각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특별히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웃으면서 “세부에까지 마음을 썼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장 앞에 걸린 박대성 화백의 백두산 장백폭포와 제주 성산일출봉 그림을 가리키며 “왼쪽에는 장백폭포, 오른쪽엔 성산일출봉 그림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북측을 통해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도 준비해서 대통령께서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선에 따라 상징적인 그림 배치

두 정상이 회포를 풀 연회장에는 신태수 작가



1
민정기 화백의 <북한산>
앞에 선 남북 정상.
(사진 제공 매일경제신문)

2
신장식 교수의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

3
김종만 작가의
<천년의 동행, 그 시작>.

4
신태수 작가의
<두무진에서 장산곶>.



의 <두무진에서 장산곶>을 전시했다. 북한과 마주한 서해 최북단 백령도 두무진과 북한 황해남도 장산곶을 그린 작품이다. 연평해전 등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진 서해를 ‘평화의 보금자리’로 만들자는 뜻을 담았다.

전반적으로 두 정상의 동선에 따라 회담 장소 분위기에 맞는 그림을 상징적으로 잘 배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이념이 배제된 풍경화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시선을 압도하는 아름다운 대작으로 회담장을 환하게 만들었다. 또한 회화와 판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골라 다채롭게 연출했다. 마지막 야간 환송행사에서는 평화의집 건물 자체를 스크린으로 삼아 레이저를 쏘는 미

디어 파사드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작가들도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의 배경으로 자신의 작품이 선택된 데 고무됐다. 신장식 교수는 “내 그림 앞에서 두 정상이 악수한 후 한반도의 평화와 희망이 더 커지고 밝은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 앞으로 자유롭게 금강산에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한민족의 기운을 느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정기 화백 역시 “내 그림이 한반도 평화를 선언한 남북정상회담 현장의 한 장면이 되어 화가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남북 화가들의 교류도 활발해져 북한 땅을 자유롭게 밟고 싶다”고 기대했다.

글 전지현 매일경제신문 기자 · 사진 제공 청와대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손으로 하는 봉제의 가치를 알린다

소규모 봉제공장이 밀집한 종로구 창신동에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이하 봉제역사관)이 지난 4월 11일 개관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봉제역사관은 봉제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는 문화역사공간이다. ‘이음피움’이라는 이름에는 실로 천을 이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봉제의 공정,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잇고 새로운 미래를 피운다는 의미를 담았다.



Made in Seoul

1961년 평화시장이 문을 연 후 동대문 일대에는 의류 도매 상가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봉제공장들은 1970년대부터 동대문과 가깝고 임대료가 저렴한 창신동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다. 한때 3,000곳이 넘는 봉제공장은 현재 1,000곳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소규모 공장들이 여전히 명맥을 잇고 있다. 화려해 보이는 동대문 패션타운 뒤로 가려져 있던 동네가 바로 창신동이다. 창신동 봉제마을은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거리 전체는 ‘창신동 봉제 거리 박물관’으로 조성되었다.

봉제역사관은 오토바이들이 원단과 옷을 싣고 정신없이 오가는 창신동의 가파른 골목 끝에 자리 잡았다. 접이식 문이 활짝 열려 있는 1층 입구에서는 낯선 기계가 방문객을 반긴다. 영문 이니셜을 새겨주는 컴퓨터 자수기다.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즉석에서 ‘이니셜 자수 새기기’를 해볼 수 있다. 터치스크린에 영문 이니셜을 입력하고 폰트, 크기, 실 색깔을 선택하면 천에 자동으로 이니셜이 새겨진다. 비치된 자투리천을 사용하거나 손수건, 에코백을 가져와도 된다. 봉제역사관 운영을 맡고 있는 김미영 선임 디자이너는 “원래 기계가 지하 봉제작업실에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1층으로 옮겼다”면서 취향대로 이니셜

을 새길 수 있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자수 기계 옆에는 열전사 프레스 기계가 있어 캐릭터 전사 스티커를 천이나 티셔츠에 붙일 수 있다. 1층 안쪽은 봉제자료실로 국내외 봉제 관련 서적, 〈월간 봉제기술〉 같은 전문 잡지가 비치되어 있다.

2층에 있는 단추가게에서는 각양각색의 단추를 전시하고 판매한다. 서랍을 차례대로 열어 보다 보면 양증맞은 아기 단추, 30~40년 전에 만들어져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복고풍 단추 등이 나온다. 단추가게에서 판매하는 작업복을 구입하면 마음에 드는 단추를 골라 달 수 있다. 김미영 선임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해 인근 봉제인들에게 작업 단가를 제대로 지불하고 만든 공정상품이다. 단추가게 안에 걸어놓은 작품은 단추 따로, 지퍼 따로 공정별 전문가에게 맡겨서 만들었다. 낱알의 단추들이 여러 봉제인의 손을 거쳐 하나의 멋진 설치작품으로 태어났다.

2층 전시관 입구에서는 놀이공원처럼 줄자 모양의 입장 팔찌를 채워준다. 전시장 사방을 가득 메운 액자에는 봉제광고, 1975년 창간한 〈월간 봉제계〉 표지 등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봉제산업의 역사가 담겨 있다. 봉제업의 특징은 철저한 분업이다. 크게는 패턴, 재단, 재봉의 주 공정과 단추, 다림질 등 마무리 공정으로 구분한다. 전시장 내 인터랙션 코너에서는 재봉틀의 휠을 돌려가며



2

1 봉제역사관 외관.

2 이나설 자수 새기기 체험.

3 3층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시 <서울의 봉제 마스터>.

4 체험 프로그램 '시대의 아이콘 의상 만들기'.

5 지하 1층 봉제작업실.

6 2층에 있는 단추가게.



3



4



5



6

와이셔츠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다. 9단계로 나뉘 1분 내외의 영상으로 보여준다. 2층과 연결된 3층에는 기획전시 <서울의 봉제 마스터>전이 진행 중이다. 30~40년 이상 봉제업에 종사해 이제는 장인의 경지에 이른 10명을 봉제마스터로 선정했다. 장인들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손과 하나가 되었던 가위를 기증받아 전시해 놓았다. 장인들이 직접 만든 옷은 전시실 중앙의 회전 레일에 걸려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 평생 동안 만든 셀 수 없이 많은 옷 중 이 한 벌만큼은 하나의 작품으로 남았다.

꼭대기인 4층은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아담한 무인 카페이다. 소파 자리는 창신동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이다. 카페에서는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2층에서 신청하면 반질고리와 키트를 준다. '나만의 티켓 만들기'를 고르면 라벨용

천에 프린트된 티켓에 단추를 달거나 스티치를 넣어서 하나뿐인 티켓을 만들 수 있다. '시대의 아이콘 의상 만들기'는 청바지, 미니스커트, 나팔바지, 힙합바지, 몸빼바지 키트 중 2개를 골라 옷의 패턴을 익히는 놀이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지하 1층 봉제작업실에는 공업용 재봉틀과 가정용 재봉틀 외에도 마감 처리용 인터록(interlock), 오버록(overlock) 등의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하루 최대 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강아지옷 만들기'(초급), '아기옷 만들기'(중급), '나만의 바지 만들기'(고급)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봉제 전문가들이 직접 가르쳐준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소정의 재료비만 내면 된다. 5월부터 3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원피스 만들기 등이 단계별로 추가될 예정이다.

사람으로 피어나는 공간

봉제역사관의 도슨트는 봉제 경험이 있거나 동네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다. "주민 11명을 선발해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 실전에 투입했다. 창신동과 봉제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누구보다 설명을 잘한다"는 것이 김미영 선임 디자이너의 설명. 또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점차 늘리고, 영상과 사진 외에 실물 전시품도 보완할 예정"이라며 버려진 자투리천을 활용해 작업하는 예술가들과 8월 말쯤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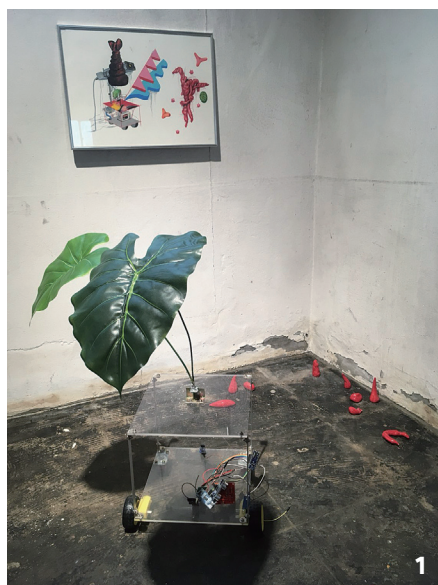
봉제역사관은 실타래를 연상시키는 건물 외장부터 천에 수를 놓은 건물안내도, 단추 모양의 수납함, 재봉틀판으로 만든 안내데스크까지 '봉제'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준다. 한 벌의 옷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듯 곳곳에서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아기자기한 공간이다.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 사진 제공 베리준 주식회사

을지로of

시작하는 작가들을 위한 ‘옥탑방 문화공간’

건축자재상이 밀집한 을지로3가 경진빌딩 5층에 이색 전시공간이 들어섰다. 일용직 노동자가 머물던 ‘달방’ 3개를 개조해 2018년 2월 개관한 ‘을지로of’가 그곳이다. 허름했던 사글세방은 전시 기회에 목마른 젊은 작가
를 품은 갤러리로 변신했다. 매달 독특한 3인전을 기획하며 공간을 꾸려가는 한대웅 씨와 오웅진 씨를 만났다.



- 1, 2 <CITY>전에 참여한 여인혁 작가의 <웃고, 말하고, 반짝이며 쓰다니는 꽃>. 하얀 방에는 설치, 오브제 장로를 전시한다.
3 영상, 미디어 장르를 전시하는 검은 방.
4 음악감상회를 진행 중인 힙합 아티스트 프레드(Fred).
5 페인팅, 일러스트 장르를 전시하는 노란 방.

‘을지로of’를 처음 찾아오는 사람은 헤매기 십상이다. 건물 어디에도 갤러리 간판이 없기 때문이다. 골목에 숨은 듯 운영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한대웅 씨가 “지나가다 이곳이 특이해 보여서 온 사람보다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온 사람들이 진지하게 전시를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판을 달지 않았어요”라고 설명했다. 처음 이 동네에 올 때부터 주변에 간판 없는 가게가 많았는데, 과시하는 느낌이 없어 좋았다. 하지만 워낙 헤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작은 깃발 정도는 달 예정이라고 한다.

공동 운영자 한대웅 씨와 오웅진 씨는 아주대 미디어학과 동기로 처음 만났다. 한 씨가 뒤늦게 사진을 시작하면서 중앙대 사진학

과로 옮긴 탓에 소속은 달라졌지만, 졸업 후 작업실을 찾던 두 사람은 자연히 의기투합했다. 임대료가 낮은 곳을 찾아 흘러온 곳이 을지로의 재개발 대상지인 이 건물이었다. 을지로의 장소성에 대해 ‘예부터 장인이 많았던 곳’과 같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굳이 거창한 의미를 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오 씨는 “모두가 덩달하게 자기 일을 하는 곳 같아서 좋았어요. 오랜 전통이 있는 곳인 만큼 단단한 곳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라며 이 지역에 매료된 사연을 들려줬다.

처음 두 사람이 건물을 봤을 때는 4층만 임대할 생각이었는데, 옥탑의 넓은 방 3개가 묘하게 마음을 끌었다. 결국 4층은 사무실



로, 5층은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을지로of’라는 공간 이름도 5층의 영문 표기가 ‘5F’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한 씨는 “of 다음에 작가 이름이 붙으니까 그분들의 공간이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라며 숨은 의미를 전했다.

이들이 특히 공들인 부분은 3개의 여관방을 빼대는 남겨둔 채 전시에 적합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일이었다. 공간을 하얀 방, 노란 방, 검은 방이라는 세 가지 콘셉트로 재구성한 후, 작가 한 사람에게 전시공간 한 곳을 약 한 달간 무료로 대관해주고 있다. 한 씨는 이러한 공간을 연 이유에 대해 “한국은 작가에게 가혹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작업실이나 전시장도 돈 주고 빌려야 하고, 창작지원금도 실패할 리 없는 사람만 받는 현실이 안타까워 “서로가 서로의 구명보트가 되어주자는 마음으로 공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곁에 있던 오 씨가 “어쩌면 함께 물에 떠내려가는 것일 수도 있죠”라며 웃음 지었다. 하지만 부족한 환경에서도 남아서 뭔가 하려는 그 마음이 예뻐 보이기엔 이런 시도를 계속하게 된다고.

을지로of를 구성할 때 영감을 준 것은, 한 씨가 독일 바이마르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 경험한 다채로운 전시 문화였다. 파티와 전시를 함께하거나, 술집에서 좌석 없이 전시만 하는 공간도 있었다. “한 번은 도시 외곽 폐창고에서 열린 전시에 갔는데, 그 큰 공간이 사람들로 꽉 찬 게 인상 깊었어요. 학생 전시에도 관람료를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전시가 끝나면 페스티벌처럼 함께

춤추며 놀고 퍼포먼스도 하는 문화가 부럽더라고요.”

한 씨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을지로of 역시 일반 갤러리와 차별화된 공간을 자처한다. 무료 대관으로 공간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관람객이 입장료 대신 맥주나 사과주스 한 병을 구입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간을 운영한다. 간혹 영화감상회나 인디 뮤지션과 함께하는 음악감상회도 연다.

공간을 열고 닫는 시간도 일반 갤러리보다 늦은 편이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3시에 열고 오후 11시에 닫는다. 전시 기간에는 두 사람이 상주하면서 전시 설명도 한다.

을지로of가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 묻자, 오 씨는 “기존에 없던 대안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공간의 주인은 작품이자 작가이기에, 작가들의 작업을 아카이브하고 스테이트먼트를 남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간 자체가 그들의 공동 작업이자 포트폴리오인 셈이다. 1년 계약으로 임대한 이 공간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두 사람에게겐 끝나도 끝이 아니다. 을지로of의 미래에 대해 묻자, 한 씨는 “나중에는 전시장이라는 특정 공간을 벗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바다나 숲에서 전시할 수도 있고요”라고 덧붙였다.

진행 중인 <CITY>전이 끝나면,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박정원, 권서영, 이나윤 작가의 3인전 <호텔 비나리>가 열린다. 오 씨는 “이 공간이 밤에 보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감정이 원래 이곳에 살던 사람들에게겐 폭력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타자화된 폭력에 대해 생각해볼 예정입니다”라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글 고정원 자유기고가 · 사진 제공 을지로of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시카고〉

스테디셀러 뮤지컬의 향연

뮤지컬 제작사라면 반드시 유념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뮤덕’(뮤지컬 오타쿠)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다른 대중예술 장르와 달리 뮤지컬은 관객층이 20~30대 여성에 집중된다. 이들을 놓치면 흥행은 물론 심하면 객석이 텅 비는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한다. 그 때문인지 뮤지컬은 여성 취향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사랑을 주제로 다루며 남성이 주인공을 맡는다. 만약 아이돌 출신 남자 배우가 주인공을 맡는다면 금상첨화다. 올해 뮤지컬 여름 시즌은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뮤덕’ 취향에 가장 부합하는 〈노트르담 드 파리〉와 ‘뮤덕’ 취향과 정반대인 〈시카고〉가 동시에 무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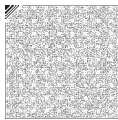
송 스루 뮤지컬의 진수

〈노트르담 드 파리〉 6. 8~8. 5,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노트르담의 꿈추〉라는 디즈니 만화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에스메랄다를 향해 끝까지 헌신하는 콰지모도는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상징이다. 이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를 각색한 것이다. 영화, 만화, 뮤지컬로 다시 만들며 수많은 번안 과정을 거쳤다. 그런 측면에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비극적 사랑을 극적으로 부각한다. 다른 번안에 비해 원작을 충실히 반영하는 편이다.

만화는 행복한 결말을 맺지만 뮤지컬은 사뭇 다르다. 또한 원작 소설은 주인공이 프롤로 신부인 반면 뮤지컬은 꿈추 종지기 콰지모도와 빼어난 미모의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에 초점을 맞춘다. 에스메랄다를 향한 남성들의 사랑 또한 볼거리다. 신부 프롤로와 근위대장 페뷔스가 에스메랄다를 사랑하며 빛는 갈등이 전면에서 부각된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음악이다. 다른 뮤지컬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구성된다. 이른바 ‘송 스루’(song through) 뮤지컬이다. 뮤지컬을 노래로만 구성하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생기는데, 바로 서사 구조 파악이 어렵



다는 것이다. 아무리 음악과 안무가 뛰어나도 서사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노트르담 드 파리>는 다소 단선적인 구성을 뚫어난 음악과 안무로 극복한다. 2008년에 첫 공연된 이후 꾸준히 관객들이 찾으면서 벌써 누적 관객 120만 명을 돌파했다. 물론 ‘뮤덕’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것은 당연하다. 뮤지컬을 보면서 통속적인 감동을 얻고 싶다면 이 작품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관능과 화려함,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전형

<시카고> 5. 22~8. 5, 디큐브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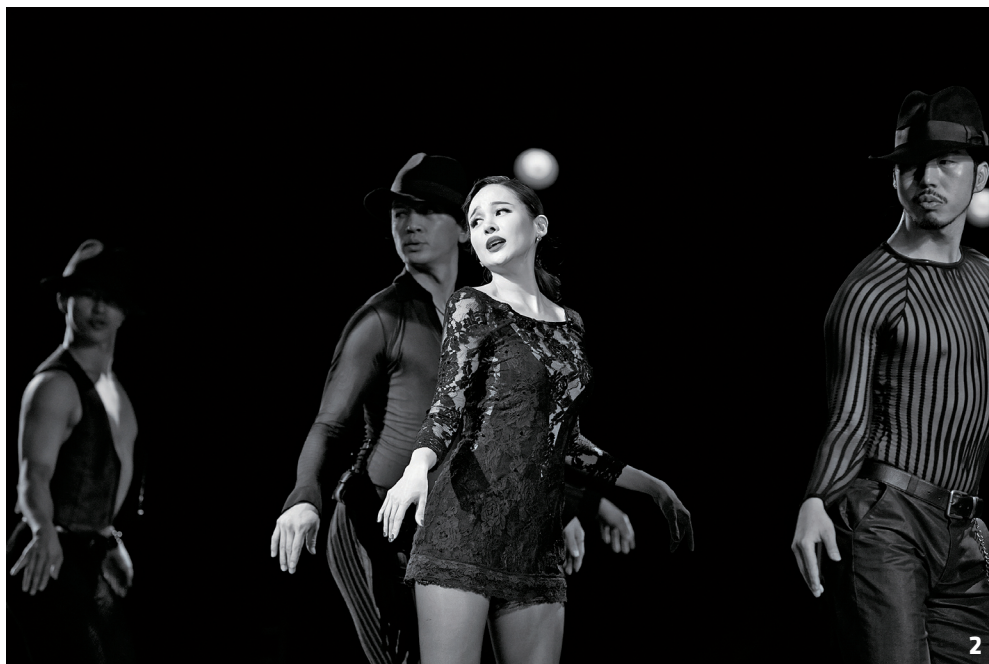
뮤지컬 <시카고>가 돌아왔다. 지난해에는 브로드웨이 공연팀의 내한공연으로 화제를 모았다면, 올해에는 한국어 라이선스 공연이다. <시카고>는 한국 뮤지컬의 산증인과 같다. 2000년 처음 한국 관객을 찾은 뒤로 올해가 14번째 공연이다. 벨마 켈리는 최정원과 박칼린, 록시 하트는 아이비와 김지우가 캐스팅됐다. 살인을 저질렀지만 관능적 매력을 뽐내는 역할에 완전히 녹아드는 배우들이다. 타락한 변호사 빌리 플린은 남경주와 안재욱이 맡았는데, 모든 배역에 친구 조화를 배려한 것이 눈에 띈다.

<시카고>는 어떻게 보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전형으로 보인다.

몸매를 훤히 드러내는 옷을 입고 여성 배우들이 재즈에 맞춰 춤을 춘다. 무대를 보고 있다면 마치 미국 어느 대도시의 재즈 바에 온 듯하다. 검은색으로 가득 찬 무대가 변화조차 없으니 배우의 몸짓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화려하고 난이도 높은 안무를 설세 없이 선보여 2시간 공연이 훌쩍 지나간다. 마치 미국식 스탠딩 쇼를 보는 것 같지만 그만큼 원작의 힘이 탄탄하다. 고난도 안무는 <노트르담 드 파리>와 비슷한 지점이다. 그럼에도 여성 배우들만 출연하고 사랑 얘기는커녕 미국 사법 제도를 풍자하는 이야기로 채웠으니 확실히 ‘뮤덕’ 취향은 아니다. 변호사 빌리 플린이 꽤나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이지만 그 역할은 크지 않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시카고>는 중장년 관객들이 많이 찾는다. 남성 관객도 다른 뮤지컬보다 많은 편이다. 마치 9시 뉴스가 끝난 뒤 이어지는 사극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주제 자체도 미국 사법 제도에 대한 풍자이니 여러모로 무거운 편이다. 그럼에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무대에 오른 것을 보면 <시카고>는 장점이 확실한 작품이다. 물론 작품의 서사까지 완벽히 이해하고 싶다면 동명의 영화를 먼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영화 자체가 뮤지컬을 기반에 두고 만들었으니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글 김규식 매일경제신문 기자 · 사진 제공 마스트엔터테인먼트, 신시컴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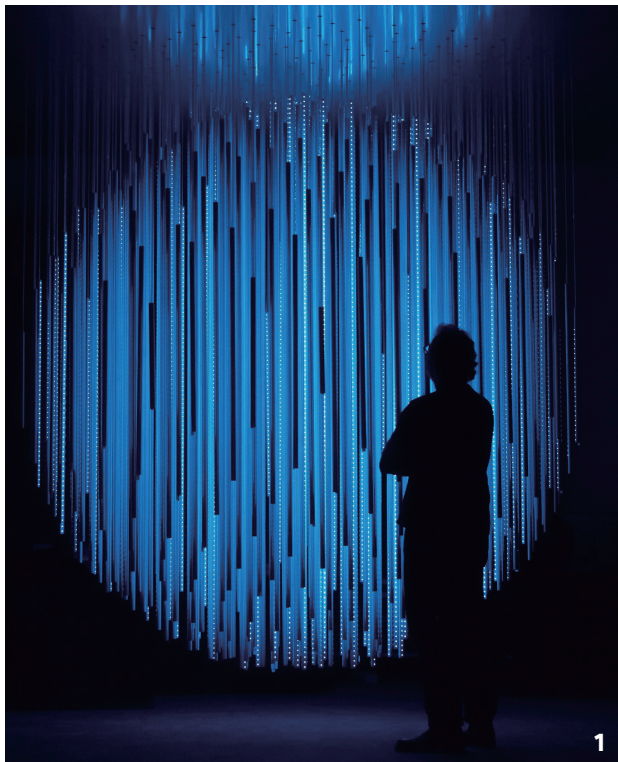
1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2 뮤지컬 <시카고>.

전시 <디시전 포리스트>와
<예술과 기술의 실험(E.A.T.): 또 다른 시작>

기술과 예술, 그 운명적 만남

기술과 예술의 만남은 '운명'일까. 기술이 발달할수록 호기심 많은 예술가들은 기술을 통해 더 자유로운 예술을 꿈꿔왔다. 기쁨은 기술 본연의 쓰임새와 무관한 '예술적 성취'를 이뤄내기도 한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것. 서울 주요 미술관 두 곳에서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주제로 한 전시가 진행 중이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개관 첫 기획전으로 멕시코 태생 작가 라파엘 로자노 헤머의 <디시전 포리스트>(Decision Forest)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기술과 예술의 만남'의 시조격인 <예술과 기술의 실험(E.A.T.): 또 다른 시작>전을 개최한다.



기술을 통한 인간과 예술의 상호작용

<디시전 포리스트>(Decision Forest) 5. 3~8. 26,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디시전 포리스트>는 대규모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로, 상당히 대중친화적이다. 복잡한 A, I(인공지능) 알고리즘보다 키네틱 조각, 생체 측정 설치작품, 카메라, 사운드 환경, 프로젝터를 활용하는 등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을 통해 관객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참여로 전시를 완성한다.

미술관 입구로 들어서면 지름 3m의 거대한 3D 원형 조각 <블루선>과 가장 먼저 만난다. 태양을 표현한 <블루선>은 작가가 10년간 미 항공우주국(NASA)과 협업해 만든 작품이다. 태양광선이 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선 파랑에 가깝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지하 전시장의 첫 작품은 <샌드박스>다. 미국 LA의 산타 모니카 해변에서 진행한 공공 프로젝트로, 거대한 인공 해변에서 관람객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한바탕 '놀이'를 즐긴다. 공간을 함께 점유하고 서로 연결되고 바라보고 함께 있다는 경험을 주고자 했다.

초음파 분무기를 사용한 분수 <페어아이들리엄>(Pareidolium)도 눈길을 끈다. 수백 개의 초음파 분무기가 차가운 증기를 내뿜는데, 관객이 이 물속을 들여다보면 앞의 카메라가 작동, 관객의 얼굴 이미지를 추출해 증기로 그려낸다. 관객이 물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작품이다. 그런가 하면 <줌 파빌리온>(Zoom Pavilion)은 얼굴 인식과 형태 감지 알고리즘을 사용, 참여자들의 모습과 전시공간에서의 이들의 관계를 기록한다. 카메라가 감시의 용도가 아닌 인간관계를 측정하는 기술로 쓰였다.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작품 <펄스 룸>(Pulse Room)은 인간의 심장박동을 빛과 소리로 변환한 작업이다. 전시장 한편의 센서 스틱을 잡으면 관객의 심장박동을 측정하고, 그 박동에 맞춰 백열전구가 반짝인다. 260개의 백열전구는 260명의 데이터를 기록, 동시에 저마다의 리듬으로 고동친다.

로자노헤머는 "이전까지 관객들이 어떤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면 최근의 예술은 예술이 관객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듣고 감시하며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한다"며 "이것이 예술의 흐름"이라고 했다. 기술을 통해 인간과 예술이 비로소 상호작용하게 됐음을 시사한다.



융복합 예술의 가능성

〈예술과 기술의 실험(E.A.T.): 또 다른 시작〉 5. 26~9. 16,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선도한 협업체 'E.A.T.'(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가 한국에서 처음 소개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60년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예술가와 공학자의 협업체 'E.A.T.'의 주요 활동을 조명한다. 전시에는 로버트 라우센버그, 앤디 워홀, 머스 커닝햄, 존 케이지, 로버트 휘트먼 등 E.A.T.를 이끈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 33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이 소개된다.

E.A.T.는 1966년 미국의 팝아트 작가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로버트 휘트먼, 벨 연구소의 공학자 빌리 클뤼버와 프레드 팔트하우어 등 예술가와 공학자가 예술과 기술 간의 협업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한때 회원이 6,000명까지 늘어나며 예술계에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협업의 시대’, ‘E.A.T.의 설립’, ‘아홉 번의 밤: 연극과 공학’, ‘확장된 상호작용’ 등 총 4개 섹션으로 이루어진 전시는 E.A.T.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총망라한다. 특히 두 번째 섹션인 ‘E.A.T.의 설립’에서는 그들의 활약상을 자세히 소개한다. 냉각장치를 갖춘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이 녹고 열기를 반복하는 한스 하케의 〈아이스 테이블〉(1967),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로버트 휘트먼의 〈붉은 직선〉(1967) 등이 관객의 시선을 붙잡는다.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장 뒤피의 〈심장 박동 먼지: 원뿔



1 라파엘 로자노헤머 〈블루선〉(Blue Sun), LED 배턴, 알루미늄 및 나무프레임, 컴퓨터, 태양 교류 방식식, 오픈프레임웍스, d3 프로그래밍, 지름 300cm, 2018, (사진 제공 연합뉴스)

2 로버트 라우센버그 〈트레이서〉(Tracer), 자전거 바퀴와 금속판, 전기 모터, 목재에 플렉시글라스, 69.90×57.20×15.20cm, 1962, 페이스 갤러리 서울 소장.

3 백남준 〈자석 TV〉(Magnet TV), TV 수상기, 자석, 50×90×120cm, 1965(1995 재제작),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형의 피라미드〉다. 관람객의 심장박동을 청진기로 포착, 그 박동에 따라 먼지처럼 쌓인 붉은 안료가 고동친다. 붉은 피가 용솟음치는 것 같은 이 작품은 1968년 뒤피가 공학자 랐프 마르텔과 협업한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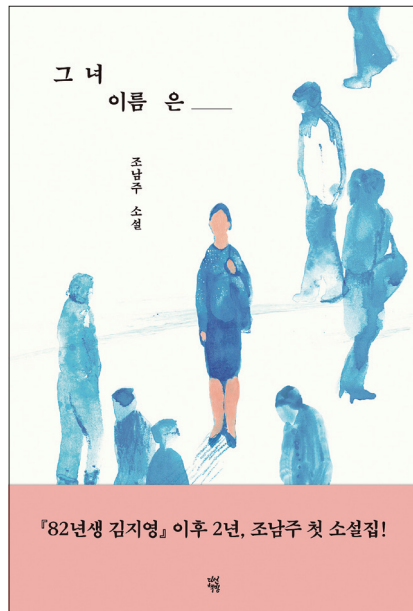
50년 전의 ‘낯은’ 기술을 활용한 작품이 현대의 관객에게도 울림을 주는 건 E.A.T.가 추구했던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욱 진보할 현대사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E.A.T.가 추구했던 가치의 중심엔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그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질 신세계에 대한 비전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예술의 가능성을 성찰해볼 수 있는 자리다.

글 이한빛 헤럴드경제신문 기자

책 〈그녀 이름은〉과 〈여신을 찾아서〉

지금,여기의 페미니즘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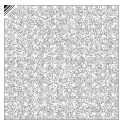
최근 페미니즘은 ‘가장 핫한 아이템’이 됐다. 그동안 어처구니없게도 ‘커밍아웃’의 범주에 속할 만큼 따가운 시선을 받았지만,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반전을 맞았다. 가수 겸 배우 수지를 비롯해 AOA의 설현, 에이핑크의 손나은 등이 페미니즘을 지지했으며,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여성의 가슴을 음란물로 규정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한 페이스북코리아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출판업계에서도 페미니즘 관련 도서의 판매량이 2018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121.5%가량 급증하는 등 화두가 됐다. 이런 열풍 속에 올해 출간된 페미니즘 관련 도서 2권을 선택해 소개한다. 〈그녀 이름은〉과 〈여신을 찾아서〉다.



또 다른 ‘김지영’들

〈그녀 이름은〉 조남주 지음, 다산책방

지난해 〈82년생 김지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에 이름을 올린 조남주의 신작이다. 조 작가가 2016년 12월부터 1년간 60여 명의 여성을 인터뷰해 〈경향신문〉에 연재한 르포 기사 중 28편을 묶어 소설집으로 출간했다. 〈그녀 이름은〉에는 〈82년생 김지영〉에 나온 수많은 김지영이 각기 다른 모습과 사연으로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이야기한다. 조 작가 특유의 건조하고 간결한 문체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오히려 더욱 쓰라리게 전달하는 훌륭한 도구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다는 상사의 요구를 거절해 회사에서 ‘왕따’가 된 여성, 여전히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 등의 이야기가 담겼다.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미 수없이 들어왔지만 ‘가슴이 딱딱해지지 않아’ 여전히 이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건조한 문체를 통해 더욱 절절하게 전달된다. 현실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걸그룹을 좋아하는 주경의 이야기를 그린 〈그녀에게〉에서는 남성 중심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꼬



집는다. 주경은 걸그룹 멤버 ‘원’을 좋아하는데, 입을 가리지 않고 웃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자 출연자 중 이상형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는 등 걸크러시 면모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의 하이라이트는 컴백 방송에 출연한 원에게 사회자가 “애교 한 번 가야죠”라고 하자 이를 보던 주경이 눈을 감고 “애교 하지 마, 애교 따위 옛이나 먹으라지”라며 강요된 여성성인 애교에 원이 응할까봐 몸서리를 치는 장면이다. 여성에게, 특히 걸그룹에게 필수인 애교가 그저 학습된 여성성이기에 이를 거절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녀 이름은〉의 에필로그, 〈78년생 J〉의 마지막 문장이 인상 깊다. “책임지는 어른이 되고 싶다.” 수많은 김지영의 삶을 옮기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작가의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페미니스트의 여신 답사기

〈여신을 찾아서〉 김신명숙 지음, 판미동

이 책은 1997년에 발간된 한국 최초의 페미니즘 잡지 〈이프〉의 편집인이었으며,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 등을 펴내며 한국 페미니즘을 주도한 김신명숙이 썼다. 10년간의 그리스 크레타섬 여신(女神) 순례를 비롯해 제주도, 지리산, 경주 등을 돌며 국내외 다양한 여신 문화를 담아낸 ‘여신 답사기’다. ‘여신’이라고 하면 흔히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자’ 신을 떠올리지만, 그가 재발견한 한국의 여신



은 ‘남신’과 동등한 권력을 가진 당당한 주체들이다.

특히 그는 우리 역사 중 선덕 · 진덕 · 진성여왕 등 여왕이 3명이나 있었던 신라사에 주목하며, 수수께끼 같은 역사가 많은 신라사를 여성과 여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의문점이 상당 부분 풀린다고 주장한다. 3명의 여왕, 첨성대와 포석정의 정체, 금관과 금허리띠의 상징 등 신라사에는 유난히 수수께끼가 많다. 왕의 무덤에서는 금동관이 나온 반면 왕비의 무덤에서는 화려하기 그지 없는 금관이 나온 점, 화랑 이전의 원화(화랑의 전신으로 귀족 출신의 여성 2명을 뽑아 단체의 우두머리로 삼고 300여 명의 젊은이를 거느리게 한 제도) 등이 지금도 논쟁거리로 남은 것은 신라의 역사를 남성 중심으로만 조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마고할미, 설몽대할망, 바리데기 등 강렬한 한국 여신의 전통을 탐구하며, 영화 〈아바타〉와 소설 〈다빈치 코드〉 등 대중문화가 불러낸 여신 신앙, ‘풍요의 여신 가문장아기’, ‘살림정신을 구현한 만덕’, ‘화가 천경자의 수호신 뱀’ 등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판타지처럼 펼쳐진다.

글 연승 서울경제신문 기자 · 사진 제공 다산책방, 판미동

영화 <허스토리>와 <여중생A>

여성으로 산다는 것

초여름을 맞은 국내 극장가의 키워드는 ‘여성의 재발견’이다. 한동안 영화 매체에서 잊혔거나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다룬 작품들이 최근 연달아 관객을 만나고 있다. 매력적인 할리우드 톱스타들을 앞세운 블록버스터 <오션스 8>, 왕년의 섹시 스타 헤디 라마의 과학적 업적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밤샹>, 미국의 유명 스탠드업 코미디언 에이미 슈머의 호연이 인상적인 <아이 필 프리티>,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해 무작정 LA로 떠나는 여성의 모험담을 그린 <스탠바이, 웬디> 등이다. 여성 캐릭터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2편의 한국영화도 있다. 일본 정부에 정면으로 맞선 위안부 할머니들의 법정 투쟁을 다룬 <허스토리>와 내성적인 여중생의 성장담을 조명한 <여중생A>가 그것. 이 2편의 영화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여성 캐릭터들과 그들의 멋진 양상בל을 보여준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1 영화 <허스토리>.

2 영화 <여중생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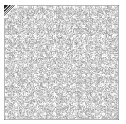
그녀의 역사를 기억하라

민규동 감독의 <허스토리>

23번의 재판, 10명의 원고단, 13명의 변호인. 민규동 감독의 신작 <허스토리>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이어갔던 위안부 여성들의 법정 투쟁을 다룬 영화다. 7년간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 길고도 고된 재판에 임한 할머니들은 위안부 관련 재판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영화는 자신의 목소리로 변화를 만든 위안부 여성들과 그들을 도운 이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부산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여성 경영인 문정숙(김희애)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신고 전화를 개설한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으나, 할머니들의 비극적인 과거를 알아갈수록 정숙은 정당한 보상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재일교포 변호사를 선임한 정숙은 배정길(김해숙), 박순녀(예수정), 서귀순(문숙), 이옥주(이용녀) 할머니와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을 시작한다.

제목 <허스토리>는 ‘그녀(her)의 역사(history)’라는 뜻으로, 영화는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야 함을 역설한다. “여자들은 이게 문제기라! 와 다 남 때문이고, 나는 어딴노? (중략) 내가 만들고, 이끌고, 다 했다, 이래 잘난 척 좀 하면 안 되나.” 사업이 성공했음에도 그 공을 남편과 운으로 돌리는 친구에게 정숙은 이렇게 말한다. <허스토리>의 핵심을 관통하는 대사다. 영화는 전쟁의 피해자로만 치부되던 위안부 여성들의 다양한 사연에 귀 기울이며 잊히거나 간과되어온 일제강점기 시대 여성의 역사를 재구성한다. 그 결과 <허스토리>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그 어떤 영화보다 여성들의 모습을 다채롭게 그려냈다. 이들 중에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포주의 삶을 선택한 여성도 있고, 비난을 감수하며 동료의 혈육을 끌어안은 여성도 있다. 한국 정부조차 주목하지 않았던 위안부 여성들을 톡 크게 후원하는 여성 사업가들과 국적을 넘어 한국 위안부 여성들을 지지하고 후



원하는 일본 여성들의 사연도 다룬다.

세간의 편견과 무관심을 무릅쓰고 서로 연대하여 마침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허스토리>의 여성들은 페미니즘의 물결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 2018년의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지는 존재들이다. 영화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사춘기 소녀의 성장통

이경섭 감독의 <여중생A>

<여중생A>는 허5파6 작가가 포털사이트에 연재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원작 웹툰은 가정·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온라인 게임의 명암 등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날카롭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중생A>는 원작의 다양한 소재 중에서도 집단 따돌림과 가정 폭력, 자살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영화는 전철역에서 신문을 보는 한 여학생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신문의 첫 장에는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린 여중생 A양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여중생 A양은 누구인가. 그녀는 왜 학교에서 투신했는가. 영화는 여중생 장미래(김환희)와 주변 인물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여중생A>는 한국 상업영화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사춘기

소녀의 성장담을 극의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영화다. (성장기 한국 소녀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 중 기억에 남는 영화는 아직까지도 <여고괴담> 시리즈뿐인 것 같다.) 주인공 미래는 독서와 영화를 좋아하는 소심한 소녀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에, 집에서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그는 롤플레이팅 게임 '원더링 월드'에 접속하거나 소설을 쓰며 현실을 잊으려 한다. 하지만 영화는 미래를 일방적인 피해자로 그리지 않는다. 그에게는 근사한 글솜씨가 있고, 가상현실에서는 게임을 잘하는 멋진 플레이어이며, 위기에 처한 친구에게 손을 내미는 법을 알고 있다. 때로는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죽음을 결심할 정도로 어두운 나날들이 펼쳐지지만, 영화는 마지막까지 미래를, 그리고 극중 모든 인물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 이야기에선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 어떤 소설을 쓰고 싶느냐는 친구 백한(정다빈)의 물음에 미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여중생A>가 불안정하고 유약한 마음을 지닌 성장기의 소년소녀들을 보듬는 방식이다. 극중에서 미래가 쓰는 소설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 소설의 빈칸은 앞으로 수많은 '미래'들이 채워나갈 것이다.

영화 <허스토리>와 <여중생A>는 여성 주도의 서사로 '남자 영화' 일색이었던 충무로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다. 우리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듣고 싶다.

글 장영엽 씨네21 기자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경력도 단절된 제가
미술관 도슨트로
일할 수 있을까요?

미술을 참 좋아하는 세 살배기 아기 엄마입니다. 결혼 전에는 혼자 전시회도 많이 보러 다녔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근처 돌아다닐 여유도 없어 자연스럽게 미술관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우연히 시내 한 미술관을 찾았는데, 거기서 친절히 작품을 설명해주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문득 ‘저분은 미술관 직원일까?’ 하는 궁금증과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기더군요. 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출산을 겪으며 이렇다 할 경력조차 쌓지 못한 제가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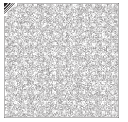
도슨트가 뭔가요?

미술관이나 전시장에서 작품을 설명해주는 사람들을 큐레이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일컫는 정확한 명칭은 ‘도슨트’(docent)입니다. 이 명칭은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했습니다. 큐레이터가 전시를 기획하는 일을 한다면, 도슨트는 관람객이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경우에 따라, 또 활동하는 기관에 따라 ‘전시해설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국내에 도슨트가 도입되기 시작한 건 1995년입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제가 처음 도슨트를 만난 시기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미술 과제를 위해 당시 시청역 인근에 있던 호암갤러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본 전시가 〈장욱진展〉이었습니다. 미술관이 꽤 넓었는데, 복직하는 사람들 사이로 전시장을 가로지르며 작품을 해설해주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과제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귀동냥하듯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태어나 처음 보는 화가의 그림이 조금씩 이해가 가고 작품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했던 이날의 기억으로 저는 미술관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당시 이름도 몰랐던 ‘도슨트’를 막연히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도슨트가 되려면

이제 도슨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았으니, 도슨트가 되는 방법을 살펴볼 차례지요?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저는 공공 미술관인 서울시립미술관의 도슨트 양성 교육에 참여하면서 도슨트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술관에서는 자원봉사로 모든 전시의 도슨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직업적인 활동은 아닌지라 전공이 미술과 무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성 교육 당시 추천으로 선발된 50~60명 정도의 교육생들은 10주 남짓 강의를 들었습니다. 출석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도슨트가 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치면 최종 합격이었습니다. 제가 응시했던 해에는 합격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벌써 12년 전의 일인데, 그중 지금까지 활동하는 사람은 2명 정도입니다. 강제하는 일이 아니고 자원봉사다 보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려면 개인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미술관 교육이 미술관의 주요 사업으로 대두되면서 도슨트 양성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고양아람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등 국공립 미술관뿐 아니라 아트선재, 대림미술관 등 사립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양성 교육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각 미술관의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살펴보고 매년 비슷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모집하는 양성 교육을 시기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하고 메모해야겠죠?

도슨트의 두 가지 자질

앞서 언급한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자질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술에 대한 관심과 작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설명을 위한 원고를 작성하려면 작품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큐레이터가 전시를 기획한 의도와 작품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전달해주지만, 이 뼈대에 살을 붙여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전시라 해도 어떤 사람이 설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마치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교사의 역량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과 반응이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자질은 바로 전달 능력입니다. 자료를 모아 설명 원고를 작성한다 해도 실전에서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는 태도가 중요합

니다. 이는 곧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전시장의 동선과 작품 배치를 고려하고, 말투나 음성, 말하는 속도, 시선 처리, 손짓 하나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자칫 고압적으로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관람객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경우에 따라 과도하게 전시해설을 방해하는 관람객이 발생한다면 이를 대처하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전시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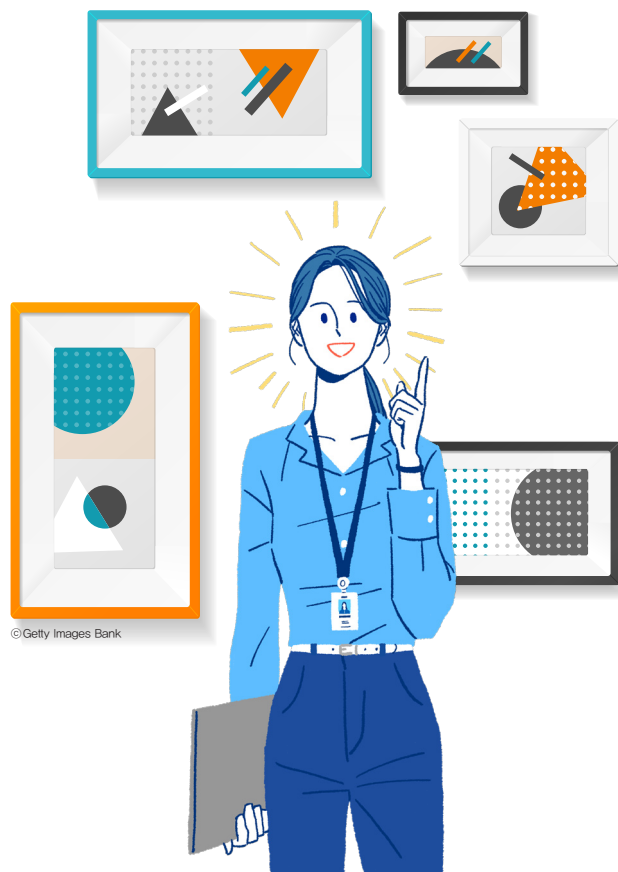
도슨트로 활동하다 보니

도슨트를 하다 보면 멈추지 않고 배우고 성장한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만나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해설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느끼는 보람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즐거움입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전시장을 가로지르며 목이 설 때까지 열변을 토하고 나면 후련함도 밀려옵니다. 카타르시스도 바로 이런 거구나 싶을 만큼요. 그때 관람객 한 명이 조용히 따라와 제 설명이 전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도슨트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비정기 채용이나 사립미술관협회의 지원사업으로 도슨트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 자원봉사로 운영됩니다. 전시 기획이 미술관 업무의 핵심이다 보니 도슨트는 큐레이터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하죠. 특히나 전시장을 지키는 역할과 도슨트를 겸하는 경우일수록 대우는 열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슨트를 ‘미술관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작품이 대중과 만나는 가장 결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슨트 운영이 점차 확대되는 것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야기가 길었네요. 질문자분이 전공도 다르고 경력도 단절된 초보 엄마라고 하셨지요? 미술작품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이가 훗날 엄마의 설명을 들으며 미술관 나들이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지요. 지금 당장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답변 **방유경**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 서울시립미술관 자원봉사 도슨트



©Getty Images Bank

국회의사당의 역사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담다

한강을 배경으로 한 지금의 국회의사당은 서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이지만, 여의도에 자리 잡기 전까지 전국을 전전하며 부침을 겪었습니다. 과거의 국회의사당은 최신 설비를 갖춘 지금의 국회의사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지만, 의견 충돌로 고성이 오가는 모습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국회의사당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은 6·25전쟁을 겪으며 서울에서 부산으로, 대구로, 다시 서울을 거치며 여러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제헌국회가 개원한 1948년, 서울 세종로 중앙청 중앙홀이 첫 의사당으로 사용됐고,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며 임시 수도였던 대구의 문화극장이 의사당이 됐습니다. 이후 전세가 악화되자 정부와 함께 국회도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문화극장을 의사당으로 사용했습니다. 서울이 수복되고, 정부가 서울로 돌아오자 국회도 다시 중앙홀에 자리 잡았다가 1950년 말부터 1951년 초까지 서울 태평로 부민관(府民館) 건물을 의사당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4후퇴로 정부가 다시 부산으로 남하하며 부산극장이 의사당이 됐고, 1951년 6월부터 1953년 8월 서울 환도 때까지 경상남도청 무덕전이 의사당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로 환도한 국회는 1953년 9월부터 제2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1954년 5월까지 중앙홀을 의사당으로 사용하다가 그해 6월 제3대 국회가 개원하며 부민관을 수리해 의사당을 만들었고 1975년 9월까지 사용했습니다. 양원제가 실시된 제5대 국회 때 참의원은 서울시청 뒤 대한공론사로 옮겨갔고요.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1968년 제7대 국회에서 부지를 선정한 후 1969년 제헌절을 맞아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1975년 8월 15일 완공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립극장인 부민관은 8·15광복 후 미군이 점수해 사용하다가 1949년 서울시의 소유가 됐고, 1950년 국립극단이 창단하며 국립극장으로 지정됐지만 바로 6·25전쟁이 터져 극장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은 그해 서울 수복 뒤 국회의사당으로 임시 사용됐고, 수리 후 1954년 6월 9일 정식 의사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신문 기사에는 새 의사당을 여는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4년간 우리 살림살이의 역군으로 선출된 230명의 선량들은 이미 수속 절차를 마치고 오늘 개최되는 국회에 ‘데뷔’한다. 깨끗이 단장된 새 의사당에서 회합하게 되는 새 선량들의 기분도 좋으려니와 국민 또한 동 의사당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입법하여주기를 선량들에게 고대하고 있다. 개회를 앞두고 서울로 물러든 시골 출신 의원들은 벌써부터 사무처에 와서 찻차 대여증, 무임승차권, 아파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데 좋지 못한 버릇이 생김에 아연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은 노련한 사무처 직원들이라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클수록 양심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여주겠다는 선량들의 의욕과 신념만이 있어야 할 일이다.”



〈사진〉 1959년 제4대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모습.

국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승만 정부는 당시 남산에 새 국회의사당 건립 계획을 세우고 1958년 신축 현상설계 공모전을 열어 24층 규모의 의원회관을 포함한 의사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1959년 5월 15일 2만 7,000평 대지에 자리 잡은 남산 국회의사당 신축지에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공식 축사에서 “남산에 국회의사당을 건축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애국심을 묶어서 우방에 자랑이 되고 후세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이날을 축하한다”며 “조망과 경치가 좋은 이곳에 국회의사당이 들어서면 국회가 더욱 잘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이 일어나며 국회가 해산됐고, 남산 국회의

사당 건립 계획도 백지화됐습니다.

〈사진〉은 1959년 제4대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으로 쓰이던 건물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널찍한 본회의장에 고급 탁자와 의자, 컴퓨터 등이 설치돼 있지만 당시 의원들은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다. 에어컨도 없을 때라 한 의원이 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가까이 앉아 있어 소통은 잘됐을 듯싶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의견이 충돌하며 고성이가 오가고 시끄러웠습니다.

사진 김천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기행작가 정은숙의 천호동 구사거리

대포집 가는 길

기행작가 정은숙은 천호동 토박이와 진배없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천호동을 떠난 기억이 별로 없다는 그는 천호동 곳곳에 자신만의 아지트를 숨겨놓았다. 천호동 구사거리 뒷골목, 허름하지만 정겨운 대포집들도 그런 곳 중의 하나로 그곳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일상을 위로받는다.

“우리 동네로 올래? 단골 대포집이 있는데, 대포 한 잔 받아줄게.” 요즘 우리 동네로 사람들을 청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여기서 ‘우리 동네’란, 한강 동쪽의 끄트머리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 들어앉은 변두리 강동구의 중심, 천호동이다.

사람들은 살면서 몇 번의 이사를 할까?! 인생의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인지, 난 그 부침이 많지 않았다. 일본에서 생활한 몇 년을 제외하고 요람에서 지금까지 강동구에 살고 있으며 그 안에서 몇 번의 이사를 한 것이 내 이력의 전부이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강동구의 읍내 같은 곳 천호동에 나와 놓고 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변화한 거리의 간판을 뒤로 하고 천호동 구사거리 뒷골목 허름한 대포집으로 향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대포 한 잔 하러 간다

세대에 따라 ‘대포집’이라는 말에 향수를 느끼기도 하고 낯설기도 할 것이다. 대포집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도심의 뒷골목, 시장 통, 동네 어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막걸리, 안주일절(체), 왕대포 등의 메뉴를 유리창에 써놓곤 했다. ‘대포’(大砲)란 큰 바가지라는 의미이다. 큰 바가지, 즉 큰 술잔을 말하는데 큰 술잔으로 마실 수 있는 술로는 순한 막걸리가 적격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포집을 막걸리 집이라고 했고, ‘대포 한 잔 하자’는 말은 ‘막걸리 한 잔 하자’라는 뜻으로 통했다. 드림통 테이블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한 잔 들이켜며 고단한 일상을 위로받았던 곳이 대포집이다. 가난했지만 파스했던 어제의 대포집을 동경한다. 그곳의



막걸리 한 잔으로 고단한 일상을 위로받는 대포집.

순박한 흥취와 맛, 정겨움, 사람 냄새가 좋다.

5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천호역 앞. 행인들 사이로 후배의 얼굴이 보인다. 천호동이 처음이라는 후배가 “변두리가 아니네, 그 유명하다는 천호동을 이제 와보네” 하며 너스레를 떤다.

“잘 왔어. 동네 구경하면서 대포집에 가자고!!” 가난한 내가 호기 있게 말한다.

천호동의 속살, 구사거리

대형마트 뒤쪽 골목길. 이곳은 구사거리로 향하는 길로, 일명 ‘감자탕 골목’이다. 지금 천호동 하면 주꾸미 골목, 김치찌개 골목 등



이 떠오르지만 원래 감자탕 골목과 족발 골목이 유명했다. 감자탕 골목이라고 부르기도 웅색해졌지만, 이 길을 아는 사람은 아직도 감자탕 골목을 찾는다. 이 골목의 원조라고 하는 ‘또순이네’. 이름처럼 톱 부러지는 ‘주인 아지매’의 감자탕에 ‘찌주’를 마시며 인생의 쓴맛을 달랜다.

대형마트를 등지고 골목을 걸으면 이차선 도로가 나온다. 구사거리 길이다. ‘구’(舊)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은 과거의 중심이었음을 뜻한다. 천호대교가 생기기 전, 광진교와 이어지는 이곳이 천호동의 중심이었다.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천호극장, 문화극장, 동서울극장, 이렇게 영화관이 세 곳이나 있었다고. 번두리 삼류극장에 재개봉관이었지만, 대단하지 않나? 이곳이 강동구의 읍내 같은 곳이었다고.” 동시상영, 학생 관람 불가, 예로영화, 단체관람 등 푸른 시절의 추억만 남긴 채, 1999년 천호극장을 마지막으로 구사거리의 영화관은 사라졌다. ‘고삐리’ 시절 일탈의 장소이자 해방구였던 삼류극장의 풍경, 기억 저 끝으로 달려가보면 천호동은 내가 어른 흉내를 내며 성장해가던 공간이었다.

50여 년이 된 족발 골목은 여전히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 족발 골목 옆으로는 천호시장이다. 활기찼던 그때 그 시절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지만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이기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운 곳이다. 그러나 곧 ‘개밭’이라는 이름으로 떠나보내야 할지 모른다. 박제된 기억으로 추억할 날이 머지 않았다.

시장 안쪽에서 왼쪽으로 발을 돌리면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천호동 423번지, 일명 ‘텍사스촌’이다. 청소년기, 천호동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변화한 공간이었고 세상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앞선 공간이었다. 그러나 우물 안 개구리 시절을 지나 동네 밖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천호동을 바라보는 외지인들의 다른 시선을 알게 되었다. 천호동의 그림자, 은밀한 그곳을 천호동과 동일시하고 있었다. 그 후, 나는 한동안 천호동 콤플렉스에 걸려 천호동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우리 동네의 오아시스, 대폿집에서 한 잔

청소년이 아닌 나는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 간판을 지나 오른쪽 주택가의 좁다란 골목으로 들어간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마당 없는 허름한 1, 2층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 사이에 교회



정은숙 작가의 수많은 추억이 담긴 천호동 구사거리.

도 보이고 점집과 여인숙도 보인다. 1960~80년대, ‘서울로 서울로’ 올라온 이방인들이 부대끼며 ‘서울 살이’를 해온 공간이다. 골목 끝에 맞닿은 뒷길. 이곳에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며 오아시스인 대폿집이 있다. 3,000~1만 원 하는 안주 가격을 보고 후배가 놀란다. 우선 감자전을 시킨다. 후배는 큼지막하게 부쳐 나온 안주의 인심과 맛에 두 번 놀란다. 가득 채운 막걸리 잔을 부딪친다. 세상의 갈증을 씻어내듯 한숨에 쪽 들이켠다. 그러자, 등지고 앉은 동네 어른들의 신세타령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다니/ 이건 아니지/ 이건 절대 아니라고/ 거꾸로 뒤집어 보기도 하며/ 마구 흔들며 마시는/ 서민의 술

— 함민복 시인의 〈막걸리〉

대폿집을 나가면서 계산하는 술값을 보고 후배가 세 번 놀란다. “자, 다음 대폿집은 ‘할매집’이다, 따라와.” 오늘도 천호동의 밤은 깊어 간다.

글·사진 정은숙 먹을거리와 술, 사람, 그리고 뒷골목을 좋아하는 기행작가. 지은 책으로 〈막걸리기행〉, 〈음식이 있어 서울살이가 건널 만했다〉 등이 있다.

〈류이치 사카모토: 라이프, 라이프〉전과
문화공간 피크닉

자연의 법칙을 따르다

요즘 서울 중구 퇴계로6가길에 위치한 문화공간에서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류이치 사카모토의 〈류이치 사카모토: 라이프, 라이프〉전이 열리고 있다.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그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전시는 물론이거니와, 전시가 진행 중인 문화공간 피크닉에도 관심이 쏠린다. 피크닉은 50년 된 제약회사 사옥의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세련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자연의 소리를 찾아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류이치 사카모토의 삶과 음악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는 이렇게 시작한다. 사카모토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에 휩쓸리고도 살아남은 피아노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야기현 농업고교를 찾는다. “어떤 소리를 낼지 궁금했다.” 나무는 뒤틀리고 휘었고, 몇몇 건반은 주저앉아버렸고, 몇몇 현은 아예 끊어졌다. 사카모토는 피아노를 위로하듯 부드러운 손길로 연주한다. 처연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지만 어딘지 낯설다. 몇몇 소리를 잃어버린 데다 몇몇 소리는 틀어졌기 때문이다.

사카모토는 다른 얘기를 들려준다. “일반적인 피아노 소리야말로 인간이 억지로 조율한 부자연스러운 상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듣는 피아노 소리는 인위적으로 만든 부자연스러운 소리라는 얘기다. 그는 ‘쓰나미 피아노’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억지로 조율한 것을 쓰나미 물결이 자연 상태로 되돌려놓았다는 것이다. 자연의 소리를 좇는 행보는 지난해 발표한 스튜디오 앨범 〈async〉에서도 드러난다. 빗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밟는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닮으려는 음악관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2014년 후두암 판정을 받고 활동을 중단했다 복귀한 이후, 그의 음악관은 또 한 차례 진화했다. 그 방향이 자연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서울 중구 퇴계로6가길 문화공간 피크닉에서 열리고 있는 〈류이치 사카모토: 라이프, 라이프〉전을 보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사카모토가 일본 아마구치 정보예술센터(YCMA)와 협업해



1 류이치 사카모토.
2 문화공간 피크닉 전경.

©Studio Bolt for GLINT

1

만든 〈water state 1〉은 첨단 기술로 자연을 표현한 작품이다. 6m 높이에 매달린 324개 노즐에서 치밀한 제어를 거쳐 떨어지는 물방울은 잔잔한 수면에 동심원과 파동을 만들어내고, 이는 사카모토의 사운드와 결합된다. 물의 움직임과 사운드는 하나가 되어 비, 바람, 태풍 등 자연 현상을 표현한다. 공중에 매달린 3개의 수조를 아래에서 올려다봐야 하는 작품 〈LIFE - fluid, invisible, inaudible...〉은 파동과 물안개와 빛과 소리가 맞물리면서 하로도 되었다 바다도 되었다 하는 식이다.

개발만능주의의 역발상

전시도 인상적이었지만, 전시회가 열리는 피크닉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피크닉은 지난 5월 26일 사카모토 특별전을 시작하면서



개관했다.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남산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에 위치한 이곳을 찾아가면서 적잖이 놀랐다. 낡고 오래된 주택가 사이에 전시공간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전시장 외관이 주변 환경과 이질감 없는 오래된 건물이라는 점도 놀라웠다. 이곳은 1960년대 후반 지어진 제약회사 사옥이었다고 한다. 50년 된 건물이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피크닉은 이번 사카모토 특별전을 기획한 전시기획사 글린트가 운영하는 공간이다. 2013년 유럽 재즈 레이블 ECM 특별전을 성공시키면서 이름을 알린 글린트는 2014년 <즐거운 나의 집>전을 연 뒤 특별한 계획을 품기 시작했다. 독자적 공간을 마련해 색깔 있는 전시를 꾸준히 해보고 싶다는 게 김범상 글린트 대표의 생각이었다. 서울 후암동, 만리동 등을 돌아보며 작은 공간을 찾던 중 한 제약회사가 사옥을 내놨다는 소식을 들었다. 찾아가보고는 여기구나 싶었다.

건물을 마련하고 나니 여유자금이 많지 않았다. 투박해도 그 자체로 느낌과 색깔을 살릴 수 있도록 건물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모던하고 세련된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해나갔다. 1층엔 카페와 아트숍, 3층엔 미술랑 가이드에도 오른, 이충후 셰프의 레스토랑 제로컴플렉스를 유치했다. 전시장 앞에는 온실을 꾸몄다. 이곳에서 박미영 농부가 재배하는 식재료들은 제로컴플렉스를 비롯해 여러 레스토랑에 공급된다. 4층 옥상은 라운지와 전망대로 꾸몄다. 서울 도심과 남산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인다. 피크닉은 요즘 젊은 트렌드세터들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꼽힌다. 사카모토 특별전뿐 아니라 공간 자체를 좋아하는 이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이 퍼지면서다. 낙후된 도심 속 오래된 건물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종로구 익선동, 중구 을지로, 영등포구 문래동 등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 낡은 것을 때려 부수고 높고 화려한 새 건물을 지어 올리려고만 하는 개발만능주의를 뒤집은 역발상이 되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셈이다.

피크닉 주변에는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창고나 작은 임가공 회사들이 많다. 오랜 세월 방치된 작고 낡은 건물들이 눈에 많이 띄어 시간이 멎은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런 곳을 확 밀어버리고 재개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터다. 고유 색깔은 살리면서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게 자연의 법칙에 맞게 서울의 숨통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범상 글린트 대표는 “이 지역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주민들이 떠나야 하는 상황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 기회가 된다면 주민들과 상생하면서 지역을 재생해나가는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얼마 전 종영한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낡은 건물에 ‘경축 안전진단 통과’라는 현수막이 붙은 걸 보고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좋아하는 거구나”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니 다른 누군가가 대꾸한다. “안전하지 못해서 재건축해야 한다는 뜻이야. 건물을 없애야 한다는 걸 축하하다니 참 이상하지.” 내가 사는 곳이 더는 이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가 나만은 아닐 것이다.

글 서정민 한겨레 기자 · 사진 제공 글린트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보헤미안 예술가의 꿈과 사랑

지난 6월 13일~15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수지오페라단의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이 공연됐다. 이번 공연에는 조지아 출신의 스타 소프라노 니노 마차이제가 미미 역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으며, 남자 주인공 로돌포 역으로 잔루카 테라노바가 무대에 올라 엄청난 가창을 선보였다.

마차이제와 테라노바, 환상의 호흡

니노 마차이제는 2008년, 갑작스럽게 임신한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를 대신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무대에 서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테너 롤란도 비야손의 상대역인 줄리엣 역으로 데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당시 공연 한 달을 앞두고 출연 제안을 받았는데, 줄리엣 역을 해본 경험은 없었지만 월드 스타가 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맹렬히 준비했다. 2012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는 안나 네트렙코가 <라 보엠>의 미미를 맡았는데, 마차이제는 조연인 무제타 역으로 갈채를 받았다. 그는 이번 한국 공연에서는 주인공인 미미를 맡았다. 마차이제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커진 데다 시원

했다. 마리아 칼라스와 마리아 굴레기나를 연상시키는, 쉿소리가 섞인 듯한 금속성의 목소리로 무대를 장악했다.

더욱 놀라운 건 로돌포 역을 맡은 잔루카 테라노바의 엄청난 가창이었다. 1막부터 하이 C(높은 도)를 두 번이나 구사해야 하는 로돌포 역의 테라노바는 정확한 음정과 훌륭한 발성으로 고음을 빼어나게 구사했다. 특히 미미와 헤어지는 3막에서는 극이 진행되면서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지고 음이 높이 올라갈수록 성량도 더 커지면서 발군의 기량을 발휘, 미미 역의 마차이제와 함께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무제타 역의 러시아 소프라노 카테리나 트레치코바는 웃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는 코믹 연기로 청중들을 즐겁게 했다. 화가 마르첼로 역의 빈첸조 타오르미니, 철학자 콜리네 역의 안드레아 콘체티, 음악가 쇼나르 역의 마리안 포프 등은 모차르트나 로시니의 코믹 오페라에서 만끽할 수 있는 앙상블 오페라를 푸치니의 작품에서 즐길 수 있게 했다.

현재에도 유효한 레퍼토리

<라 보엠>은 앙리 무르제의 소설 <보헤미안의 생활 정경>을 푸치니가 오페라로 만든 작품이다. 하지만 푸치니보다 먼저 이 작품을 오페라로 쓰기 시작한 작곡가는 동료인 루제로 레온카발로였





다. 어느 날 밀라노의 카페에서 레온카발로와 커피를 마시던 푸치니는 그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요즘 내가 말이야, 앙리 뒤프제의 <보헤미안의 생활 정경>을 가지고 오페라를 쓰고 있는데 어떨 것 같아?” 푸치니는 겉으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묵묵하게 듣기만 했다. 상업적 감각이 남달리 빼어난 푸치니는 이 작품의 성공을 예감하고 헤어지자마자 오페라로 옮기기 시작했다. 결국 레온카발로보다 먼저 <라 보엠>을 완성해 발표해버렸다. 성공을 위해 친구를 버린 셈이다. 레온카발로는 땅을 치며 후회하고 노발대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1896년 2월 토리노에서 초연한 푸치니의 <라 보엠>은 공연마다 성공을 거듭했으나, 1897년 5월 베네치아에서 초연한 레온카발로의 <라 보엠>은 초연에서만 성공을 거두었을 뿐 결국 푸치니의 <라 보엠>에 밀려 극장 레퍼토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레온카발로는 자신을 배신한 푸치니를 평생 보지 않았다. <라 보엠>은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오페라지만 푸치니가 친구를 배반하며 만든 작품이다.

푸치니는 시골마을 루카에서 예술가를 꿈꾸다 밀라노 콘서바토리에서 작곡을 공부했는데, 가난했던 시절의 모습을 <라 보엠>의 로돌포, 마르첼로, 쇼나르, 콜리네에게서 엿볼 수 있어 이 작품에 특히 애착을 보였다고 한다. 푸치니의 모습이 옥탑방에서 함께 사는 이 4명의 친구들에게 투영되었다고 할까? 푸치니는

특히 시인, 화가, 철학자, 음악가 중 음악가인 쇼나르를 가장 현실적이고 생활력 있는 모습으로 그렸다. 크리스마スイ브에도 친구들을 위해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오는, 유일하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인물이다.

원작의 배경은 1840년대 파리의 겨울이지만 지구촌 어느 곳으로 설정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소재는 보편적이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성공한 예술가를 꿈꾸는 가난하고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을 주인공으로 하기 때문이다. 뉴욕을 배경으로 한 록 뮤지컬 <웬트>도 <라 보엠>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신촌 대학가로 배경을 바꾼, <서울 라보엠>이라는 제목의 소극장 오페라가 공연된 적이 있다.

레온카발로의 <라 보엠>이 실패하고 푸치니의 <라 보엠>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미미의 죽음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만큼 4막에서 미미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로돌포를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처럼 끼끼끼 울며 목소리 높여 미미를 부르는 테너도 있었고, 호세 카레라스처럼 속삭이듯 죽음을 애도하는 테너도 있었다. 이번 공연의 테너인 잔루카 테라노바는 안절부절 어찌할 바 모르는 로돌포를 연기해 청중의 눈가를 적셨다.

글 장일범 음악 평론가, MBC <TV예술무대>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다나

SK서린빌딩

정제된 담백함이 느껴지다

1960년대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오피스 빌딩은 그 당시만 해도 높이에서 느껴지는 상징적인 인상이 강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1980년대에 오피스 빌딩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다. 지금은 설계가 표준화되어 비슷한 느낌의 오피스 빌딩들이 거리에 즐비하고, 유리 표면의 커튼월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반사하고 투영한다. 반짝이는 수많은 오피스 빌딩 속에서 SK서린빌딩은 정제된 담백함으로 소란스럽지 않게 종로 한복판을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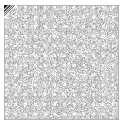
네모반듯한 사각형의 건물

SK서린빌딩은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이다. 종로에는 각양각색의 수많은 빌딩들이 존재하고 가로수와 사람들로 인해 항상 복잡하다. SK서린빌딩은 160m 높이의 36층 건물로 눈에 잘 띄는 듯하지만 주변 경관을 압도하기보다 차분하게 스며들어 있다. 화려한 간판을 내건 상점들이 즐비한 종로지만 SK서린빌딩에는 그 흔한 카페 간판조차 하나 없다. 지하 1층에 상가 아케이드가 있지만 그 존재를 파악하기 어렵다. 더구나 대기업 사옥이라는 특성 때문에 직원이나 협력업체가 아닌 이상 일반 사람들은 이 건물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은 1층 로비와 2층의 금융기관 그리고 4층의 고객 접견실과 라운지, 나비갤러리, 카페 정도다. 나머지 공간은 순수한 사무 기능의 업무공간이며, 옥상에는 직원용 옥외 휴게공간이 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은 네모반듯하게 묵묵히 서 있는 이 빌딩을 무심코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SK서린빌딩은 1992년 9월에 착공하여, 1995년에 지하 7층, 지상 25층으로 건축 승인을 받았다가 36층으로 변경하여 1999년 11월에 완공됐다. SK서린빌딩이 들어서기 전 이 자리에는 스타다스트호텔이 있었다. 1960년대 젊은이들의 통기타 문화를 이끌었던 음악감상실 '제시봉'이 있던 건물이다. 이 주변으로는 '무교동 낙지'로 불리며 서울의 대표 맛집으로 인기를 끌었던 유정·대성·서린낙지가 있었다.

건물의 설계는 서울건축의 김종성 건축가가 맡았다. SK서린빌딩은 사각형의 외관을 하고 있으며, 기준층 평면은 51×33m로 황금비율에 가깝다. 4면의 외벽에서 모두 균등한 격자 패턴이 이어지도록 디자인하여 외벽 자체가 구조체인 것을 표현했다.

건물 자체는 조용히 도시 맥락 속에 녹아들어 존재감을 숨기면서도 디테일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개성을 드러냈다. 1층은 건물 주변의 도시적 맥락을 고려해 개방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위에서 내려오던 격자형 입면을 없애고 기둥만 남겼다. 1층은 9m 간격으로 기둥만 남겨두었고 2층 바닥 밑의 철골보 깊이를 1.2m 키워서, 전체적으로 건물 외관이 날렵하게 보이도록 했다. 외부 입면은 알루미늄 격자 멀리언(mullion)¹⁾을 일정한 형태로 피복하여 기하학적인 질서와 견고함, 입체감을 살렸다. 세로선은 간격을 기둥보다 더 가늘게 했고, 가로선의 간격은 보의 길이보다 더 넓게 해 외관상으로는 창 주위에 알루미늄 시트로 막힌 부분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보인다. SK서린빌딩의 창 면적은 일반적인 커튼월 건물보다 좁다. 하지만 건물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선명한 격자 패턴이 네모반듯한 입체감을 부각시키며 최신 건축에 뒤지지 않는 군더더기 없는 세련된 느낌을 준다.

건축의 공공성

SK서린빌딩은 종로를 마주하고 있는 전면과 청계천 쪽 후면에서 모두 출입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한 종로 쪽의 출입구를 사용하며,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청계천 쪽의 출입구를 이용한다. 설계 당시 사람들의 통행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건물을 북쪽인 종로에 붙여 배치했다. 자연스레 남쪽에는 넓은 옥외광장이 형성됐고 녹지와 선근가든(sunken garden)²⁾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후 2005년에 완공된 청계천 복원 공사로 인하여 청계로가 활성화되면서 건물 후면에 배치한 옥외광장은 의도하지 않게 청계로와 자연스럽게 연계되었다. 결과적으로 건물의 주 출입구가 2개가 되어 사실 전면과 후면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건축물의 섬세한 설계를 생각할 때 옥외광장의 조경 처리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성 없는 조경은 도로와 건물을 가로막는 차단벽이 되었다. 보행로보다 높이 화강암으로 단을 쌓은 화단은 시야



- 1 검은색 알루미늄 격자 멀리온을 일정한 형태로 피복하여 기하학적인 질서와 견고함, 입체감을 살렸다.
- 2 후면 출입구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며, 4개의 모서리 기둥에는 '거북이발'이 그려져 있다.
- 3 1층은 개방성을 위해 격자형 입면을 없애고 기둥만 남겼다.
- 4 도시와 소통하지 못하는 남쪽 옥외광장.



를 차단해 답답함을 준다. 건물은 건물대로 옥외광장은 옥외광장대로 분리되어 공적·사적 영역의 경계로만 존재한다. 도시와 건물을 이어주는 적절한 소통 장치가 사라진 것이다. 미국 시그렘 빌딩 앞의 광장처럼 보도와 같은 레벨로 연결된 시원한 공간을 조성했다면 어땠을까? 청계로와 건물의 옥외광장, 실내 로비가 하나로 연결되어 개방감을 확보했다면 다양한 행위들을 통해 건축의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비워둔다고 해서 공공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상업시설과 연계해 매력적인 매개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공에 내어준 소중한 공개공지가 말 그대로 '공지'로 남지 않도록 말이다.

오피스 빌딩은 상업건축과 달리 개성 있는 디자인을 표출하기 어렵다. SK서린빌딩은 화려하지 않지만 절제되고 정제된 디자인으로 오래도록 종로에 남을 것이다.

글·사진 이훈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천산건축 대표, 건축사이자 도시공학박사이다.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 일러스트, 칼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도시를 걷다_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건축, 소통과 행복을 꿈꾸다>가 있다.

- 1) 강판을 접어 가로나 세로로 대는 것.
- 2) 지하나 지하로 통하는 공간에 꾸민 정원.

나카타 히데오 감독의 <검은 물 밑에서>

여성으로 살아야 하는 공포

나카타 히데오 감독의 2002년 작 <검은 물 밑에서>는 일상에 내재한 두려움의 근원을 파고든다는 점에서 그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보금자리가 혐오스러운 공포의 대상이 되는 순간으로 관객을 이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층간 소음 문제,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 등을 그린다. 무엇보다 이혼 후, 딸과 단둘이 살아야 하는 한 여성이 사회와 맞서 겪는 근원적 생존의 공포가 오롯이 담겼다.

여성으로 생존하기

늑룩하게 젖은 듯한 몸, 소름이 돋는 관절 꺾기, 돌아보면 어느새 나의 공간과 생활 속으로 슬금슬금 기어들어올 것만 같은 공포.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TV 화면, 종일 눈앞을 떠나지 않는 모니터, 누군가로부터 불쑥 걸려온 전화. 나카타 히데오 감독의 1998년 영화 <링>의 공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개인의 생활 속에 있는 가장 친숙한 것들이 공포의 대상이 될 때, 집 안의 모든 벽과 TV에서 산발한 사다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선사했다. <링> 시리즈에 이은 <검은 물 밑에서>는 스즈키 코지의 소설 <어두컴컴한 물 밑에서>를 원작으로, 나카타 히데오 감독의 특기인 일상 속 공포를 녹여낸다.

요시미는 이혼 후 5살 딸아이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 중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 거주 환경과 직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요시미는 딸과 함께 변두리의 아파트를 선택한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불안한 일상이 이어진다. 더불어 요시미는 양육권을 뺏으려는 전남편과 계속 싸워야 한다. 남편은 요시미의 과거를 들먹이며 엄마로서의 자격을 되묻는다. 요시미는 딸아이를 지키기 위해 직장을 구하지만 쉽지 않은 않다. 일을 하는 동안 아이는 방치되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제시간에 찾으러 가는 일도 버겁다. 요시미와 딸의 이야기에 원혼이 된 소녀의 이야기가 겹치면서 공포가 시작된다. 원혼이 된 소녀는 방치되어 있다가 아파트 물탱크에 빠져 죽었다. 그렇





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소녀는 평생 자신과 함께할 ‘엄마’로 요시미를 지목하고, 요시미는 딸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원혼의 엄마가 되기로 결정한다. 요시미의 딸은 살아남았지만, 다시 엄마 없는 아이로 자란다.

2002년에 만든 일본영화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에 대입해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은 지점이 있다.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모녀의 자살 사건 이후, 얼마 전에는 증평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다.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이 이혼을 하거나, 남편을 잃었을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생존 방법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난과 사회적 소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강한 모성을 강제받지만, 현실적으로 모성의 힘만으로 맞서 싸울 수가 없다. 영화는 한부모가족이 된 엄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공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는 목소리

2016년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근원적 공포를 되짚는 작품이었다. 골 깊은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여전히 사회적 차별이 유령처럼 스며들어 있는 일상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여성들은 큰 사건들 속의 희생자로 방치되어 있었다. 2016년 여성혐오 범죄자에 의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고, 이후 법조계에서 촉발되어 문화예술계로 확산, 사회 문제로 대두된 ‘미투 운동’이 시작됐다. 최근에는 ‘홍대 몰카’ 가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등 성차별에 맞서는 해화역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지금, 사회를 향해 외치는 목소리는 웅덩이에 빠져 죽은 원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논의의 시점을 ‘왜 이제야?’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에 맞춰야 할 것이다. 그들은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 인간 모두의 평등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귀를 기울이면...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18

7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공연 <빨간 피터들>

1977년 초연 당시 4개월 만에 6만 관객을 돌파한 고 추송웅 배우의 1인극 <빨간 피터의 고백> 오마주 공연. 원작은 카프카의 단편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서>로, 4명의 연출가, 4명의 배우가 '동시대 배우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각기 다른 모노드라마를 선보인다.

■ <추ing_낯선 자>(6.29~7.1)

■ <K의 낭독회>(7.6~8)

■ <관통시팔>(7.13~15)

■ <러시아판소리-어느학술원에의보고>(7.20~22)

일시 6월 29일(금)~7월 22일(일)
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758-2150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남산창작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시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SFAC 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2

- 서울모데트합창단 제110회 정기연주회 <Song of joy>
- <최열 : 도시온도전>(~7.2)

3

- 전시 <바다에서 만날까>(~7.15)
- 세종솔로이스츠 <헝그리 농크! 갈라 콘서트>
- 굿 힐링 페스티벌 <소원을 말해봐>(~7.8)
- 다크룸 북메이킹 프로젝트(~7.28)
- 무용 <배정혜의 新전통 IV>(~7.3)
- 어린이 가족뮤지컬 <나랑 친구할래?>(~7.29)

4

- <슬로 프로젝트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시리즈 I>
- 댄스컴퍼니 더바디 2018 <Sequence & The Road>(~7.5)
- 전시 <두들월드>(Doodle World)(~9.9)

9

- 전시 <서기원 : FRANK>(~7.9)

10

- 2018 마포국악페스티벌 <은.고.지.신>(~8.2)
- 연극 <알앤제이>(R&J)(~9.30)
- 뮤지컬 <인터뷰>(~9.30)

11

- 제5회 도시사진전(~7.23)

16

17

- 전시 <칸의 제국 몽골>(~7.17)
- 해외 영화를 만나다 <드가 새로운시각>(~10.21)

18

- 창동악가무 Vol.27 최취선 <西양금, 우리 노래로 말을 건네다>

23

- 전시 <반복적 이사(已事)>(~8.5)
- 전시 <알렉스 카츠, 아름다운 그대에게>(~7.23)
- <모니카와 떠나는 세계명화 여행전>(~9.26)

24

- 연극 <생쥐와 인간>(~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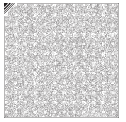
25

만화있고

30

31

- 전시 <The Third Print: 호모 아키비스트 (기록하는 인간); 작가의 개입>(~7.31)
- 전시 <Depth of Circle>(~7.31)



THU

FRI

SAT

SUN

1

-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공연
〈빨간 피터들〉-〈추ing_낯선 자〉(∼7.1)
-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전시
〈이 연극의 제목은 없습니다〉(∼9.22)
- 연극 〈우월한 나라〉(∼7.1)
- 연극 〈칸실턴트〉(∼7.1)
- 연극 〈리처드 3세〉(∼7.1)

5

- 〈2018 우리 춤 승무 이야기〉(∼7.29)
-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237회 정기연주회 '말려가 바라본 베토벤'
- 심준호 귀국 첼로 독주회
- 서크 엘루아즈 〈서커폴리스〉(∼7.8)

6

-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공연
〈빨간 피터들〉-〈K의 낭독회〉(∼7.8)
- 〈깊은숨廊사랑〉(∼7.7)
- 연극 〈라틴아메리카 콰르텟〉(∼7.15)
- 제3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7.15)
- 여우樂(락) 페스티벌(∼7.22)
- 퓨전아동뮤지컬
〈장구왕자와 비올라공주〉(∼9.2)

7

- 가무별갑 박춘재의
〈황제를 위한 콘서트 시즌5〉
- 연극 〈애도하는 사람〉(∼7.7)
- 전시 〈모네 빛을 그리다 : 두 번째 이야기〉(∼9.2)

8

- 2018 제8회 연천DMZ국제음악제 8주년 기념음악회
- 2018 아시아 기획전
〈당신은 몰랐던 이야기〉(∼7.8)
- 전시 〈유령팔〉(∼7.8)
- 한국현대미술시리즈 III
〈화화(畵畵)-유유산수〉(∼7.8)
- 뮤지컬 〈웃는 남자〉(∼8.26)

12

- 2018 유망예술지원사업MAP - 정지혜, 에스닉 창극
〈서른즈음에, 산티아고〉(∼7.13)
- 전시 〈아드만 애니메이션 - 월레스&그로밋과 친구들〉(∼7.12)

13

-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공연
〈빨간 피터들〉-〈관통사팔〉(∼7.15)
- 7월 발레갈라 'The Masterpiece'
- 국립창극단 〈홍보씨〉(∼7.22)
- 신카이마코토展 〈별의 목소리〉부터 〈너의 이름은.〉까지(∼9.26)

14

- 한마음 살림장
- 뮤지컬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갓 - 세기의 대결〉(∼8.26)
- 뮤지컬 〈천로역정〉(∼9.1)
- 뮤지컬 〈오늘을 기억해〉(∼9.2)

15

- 창작가무극 〈국경의 남쪽〉(∼7.15)
- 연극 〈그대라서 고마워요〉(∼7.15)
- 전시 〈별난 책 이야기〉(∼7.15)
- 연극 〈소님들〉(∼7.15)
- 연극 〈햄릿-The actor〉(∼7.15)

19

- 전시 〈한애규 : 푸른길〉(∼7.19)

20

-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공연
〈빨간 피터들〉-〈러시아판소리-어느학술원에의보고〉(∼7.22)
-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7.22)
- 제26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7.29)
-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8.19)
-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9.2)

21

-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
설치전시 〈언더홀 스파크〉(∼7.21)
- 전시 〈선의 기세〉(Power of Line) (∼7.21)
- 〈오! 에르베 툴레 색색깔展〉 (∼10.21)

22

- 전시 〈무브 온 아시아〉(∼7.22)
- 정동극장 기획공연 뮤지컬 〈판〉(∼7.22)

26

- 클래식안 앙상블의
〈빨간모자와 늑대〉(∼7.28)
-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2018 (∼7.29)

27

- 예술로 바캉스(∼8.5)
- 모두의 시민청(∼7.29)
- 연극 〈내가 기다린 여자〉(∼8.5)
- 〈루나파크展 : 더 디자인 아일랜드〉 (∼11.6)

28

- 전시 〈김선우 : Homo via Dodo〉 (∼7.28)

29

- 뮤지컬 〈6시 퇴근〉(∼7.29)
- 뮤지컬 〈붉은 정원〉(∼7.29)
- 〈위대한낙서展 : OBEY THE MOVEMENT〉 (∼7.29)
- 청와대 소장품 특별전 〈함께, 보다.〉(∼7.29)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전시 〈이 연극의 제목은 없습니다〉

삼일로창고극장의 모태인 극단 에저또의 1966~1977년의 역사를 조명하는 아카이브 전시. 방태수 연출가가 소장한 자료를 통해 독재정권의 예술 검열 제도 등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 속에서도 곳곳이 피어난 실험정신과 예술운동을 엿볼 수 있다.

일시 ~9월 22일(토)
화~금 오후 1시~6시
(공연 있을 시 공연 시작 전까지
관람 가능(주말 포함))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갤러리

관람료 무료

전시 02-758-2130



2018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연극 〈우월한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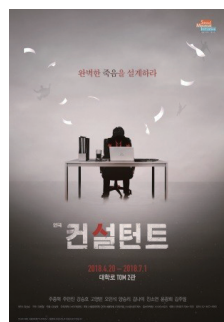
경제력, 외모, 지식을 모두 겸비한 '나라'가 전학을 오며 묘하게 비틀어지는 2학년 2반의 일상. 흠이라곤 없을 것 같은 나라의 어두운 이면을 눈치챈 '하루'와 중간에서 흔들리는 아이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씁쓸함을 확인한다.

일시 ~7월 1일(일)

장소 여행자 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10-4146-2013



2018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연극 〈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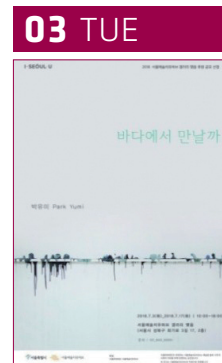
제6회 세계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임성운의 장편소설 〈컨설턴트〉를 원작으로 한 작품.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시대를 꿰뚫는 발칙한 시선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일시 ~7월 1일(일)

장소 대학로 TOM(티오엠) 2관

관람료 전석 5만 원

문의 02-3681-0900



2018 갤러리 맺음 후원 전시 〈바다에서 만날까〉

'삶의로의 회귀'를 주제로 언어와 개념이 사라지는 자리, 하나의 풍경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박유미 작가의 영상, 설치미술 전시다.

일시 7월 3일(화)~15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 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2018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세종솔로이스츠

〈히트 넘크! 갈라 콘서트〉

외르크 비트만, 비킹구르 올라프손, 에드거 마이어 등 세계가 주목하는 거장들과 세종솔로이스츠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일시 7월 3일(화)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0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B석 3만 원

문의 02-584-5494



2018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굿 힐링 페스티벌 〈소원을 말해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는 굿판! 공연 시작 전부터 신점 보기, 사주 쓰기, 소원지 쓰기, 조상해원 동참하기 등이 펼쳐진다. 우리 삶의 문제를 무대 위로 올리고 함께 풀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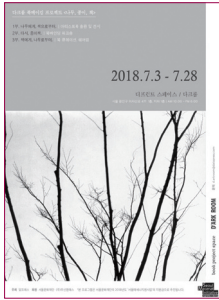
일시 7월 3일(화)~8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5시,
일 오후 3시

장소 서울문화문국악당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10-6585-8859,
<http://sdtt.or.kr>



다크룸 북메이킹 프로젝트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책을 탐구한다. '나무, 종이, 책'을 주제로 '자연과 예술의 순환'에 대한 출판 및 전시를 선보이는 북메이킹 프로젝트.

일시 7월 3일(화)~28일(토)

장소 닷프레스 다크룸(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71 CS PLAZA)

관람료 무료(북 토크, 아티스트 토크, 북바인딩 워크숍은 유료이며 연령 제한 있음)

문의 02-447-2581



서크 엘루아즈 <서커폴리스>

미래를 배경으로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지하도시와 자본가들이 살고 있는 지상도시의 충돌을 그린 영화 <메트로폴리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 서커스에 음악과 무용, 기술 그리고 연극적 요소를 결합했다.

일시 7월 5일(목)~8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2시 · 7시, 일 오후 3시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VIP석 10만 원,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문의 02-2005-0114



2018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깊은 사랑>

우리의 전통소리, 문화의 원형을 복원하고 현대인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재소환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이희문컴퍼니. 독창적인 시각으로 오늘날 사라진 경기소리 문화의 원형을 재현한다.

일시 7월 6일(금)~7일(토)

금 오후 8시, 토 오후 2시 · 5시

장소 서촌공간 서로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30-2502,

<https://spaceseoro.com>



제3회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한국영화의 상징인 '충무로'와 뮤지컬 전문 극장 충무아트센터의 '뮤지컬'이 만나 탄생한 영화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뮤지컬 영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공연 실황 영상과 라이브 공연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일시 7월 6일(금)~15일(일)

장소 충무아트센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 CGV 명동점 씨네라이브러리

관람료 영화 7천 원, 영화+공연 1만 원

문의 02-2230-6725



07 SAT

연극 <애도하는 사람>

제14회 나오키상을 수상한 텐도 아라타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애도의 의미를 알기 위해 사람이 죽은 곳을 여행하는 주인공을 통해 타인의 슬픔, 죽음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

일시 ~7월 7일(토)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 · 7시, 일 오후 4시

장소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08-5001



08 SUN

뮤지컬 <웃는 남자>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 끔찍한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순수한 '그웬플렌'의 여정을 따라 사회 정의와 인간성이 무너진 세태를 비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일시 7월 8일(일)~8월 26일(일)

화 오후 7시, 수 · 금 오후 3시 · 8시, 목 오후 8시, 토 · 공휴일 오후 2시 · 6시 30분, 일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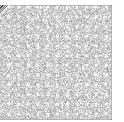
관람료 (화 · 수 · 목) R석 14만 원,

S석 12만 원, A석 8만 원, B석 6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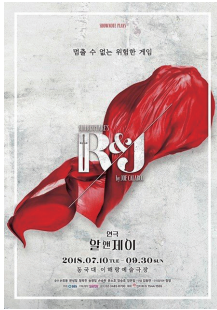
(금 · 주말 · 공휴일) R석 15만 원,

S석 13만 원, A석 9만 원, B석 7만 원

문의 1577-6478



10 TUE



연극 <알앤제이>(R&J)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변주한 남성 4인극. 규율이 엄격한 가톨릭 남학교를 배경으로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 강렬한 일탈과 희열의 순간을 경험하는 네 학생의 이야기를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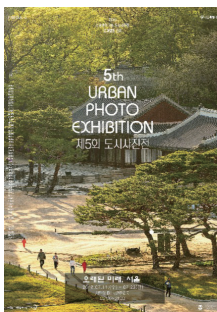
일시 7월 10일(화)~9월 30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 5천 원, S석 4만 5천 원

문의 02-3485-8700

11 WED



제5회 도시사진전

서울의 고궁을 바탕으로 서울의 과거에 담긴 현재를 공유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민 참여 사진전이다.

일시 7월 11일(수)~23일(월)
오전 9시~오후 9시
(오프닝 12일(목) 오후 7시)

장소 시민청 바스락홀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5817

12 THU



2018 유망예술지원사업MAP

정지혜, 에스닉 창극 <서른 즈음에, 산티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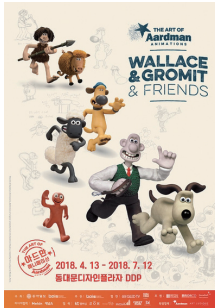
2인 창극의 새로운 길을 열고자 소리꾼 정지혜와 권아신이 만났다. 무작정 길을 나선 막막한 청춘, 서른 즈음의 두 여자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두 소리꾼과 제작진이 어떻게 버무렸는지 확인해보자.

일시 7월 12일(목)~13일(금) 오후 8시

장소 언더스탠드 에비뉴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2676-4333



전시 <아드만 애니메이션 - 월레스&그로밋과 친구들>

40년 전통의 클레이 애니메이션 명가 '아드만 스튜디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드로잉부터 클레이 모형, 세트, 비공개 영상 등을 통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일시 ~7월 12일(목)
오전 10시~오후 9시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관람료 성인 1만 5천 원,
청소년 1만 2천 원, 어린이 9천 원

문의 02-577-8415

13 FRI



국립창극단 <홍보씨>

고선웅 연출이 판소리 <홍보가>를 비틀고, 이자람 음악감독이 소리에 변화를 주니 완전히 새로운 창극 <홍보씨>가 탄생했다. 형과 아우가 뒤바뀐 설정과 외계인 종의 등장, 보리수 아래에서 득도하는 홍보 등 대담무쌍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일시 7월 13일(금)~22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화 공연 없음)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1644-2003



신카이 마코토展 <별의 목소리>부터 <너의 이름은.>까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데뷔 15주년 기념 전시. 작품별 원화를 비롯해 설정 자료, 애니메이션 콘티, 작화 등을 통해 그의 작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일시 7월 13일(금)~9월 26일(수)
오전 11시~오후 8시
(7월 30일 휴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 5천 원,
청소년 1만 2천 원, 어린이 9천 원

문의 02-2261-1393

20 FRI



2018 한강몽팡 여름축제

플랫폼형 도시문화축제. 물놀이와 생태체험, 한강다리밀영화제, 공연 등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일시 7월 20일(금)~8월 19일(일)

장소 한강수상 및 한강공원 전역

참가비 프로그램별 상이

문의 02-120(주간),
02-9780-0597~8(야간),
<http://hangang.seoul.go.kr/project>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은 예술의전당이 여름방학을 위해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똥방이와 리나>(7월 20일~29일), <평강공주와 온달바보>(7월 31일~8월 12일) 등 국내 작품 2편과 <빅토리아의 100번째 생일>(8월 14일~26일), <피노키오>(8월 23일~9월 2일) 등 덴마크, 일본 인형극을 선보인다.

일시 7월 20일(금)~9월 2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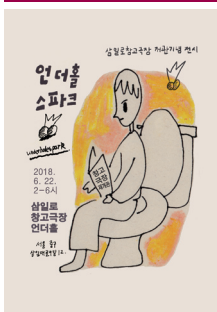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관람료 공연별 상이

문의 02-580-1300

21 SAT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

설치전시 <언더홀 스파크>

1975년 개관 당시 개관작이었던 <새타니>(박제천, 이연호 작)에서 영감을 받아 '스파크'라는 모티브를 부여한 수목요일 작가의 설치전시. 일상의 번뜩임을 드로잉과 애니메이션, 오브제 설치로 구현했다.

일시 ~7월 21일(토)

화~금 오후 1시~6시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언더홀

관람료 무료

전시 02-758-2130



<오! 에르베 툴레 색색깔깔展>

그림책이 현대미술과 만나 자유롭게 표현한 독창적 원화와 오브제. 영상 등 500여 점을 선보인다. 유아부터 어른까지 오감으로 체험하며 예술을 이해할 수 있다.

일시 7월 21일(토)~10월 21일(일)

오전 11시~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 2천 원,

청소년·어린이·유아 9천 원

문의 02-3143-4360

23 MON



2018 갤러리 맺음 후원 전시

<반복적 이사(已事)>

'이사(已事): 이미 지나간 일'을 주제로 일상적 소재와 예술적 언어가 결합한 작품을 선보인다. 새로운 공간과 기억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김세연 작가의 전시.

일시 7월 23일(월)~8월 5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 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전시 <알렉스 카츠, 아름다운

그대에게>

알렉스 카츠는 뉴욕으로 대변되는 도시의 일상적 인물들과 그 삶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우아하고 아름답게 표현한다. 1960년대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알렉스 카츠만의 독창적인 초상화 스타일을 만날 수 있다.

일시 ~7월 23일(월)

월~목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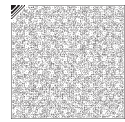
금~일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 30분

장소 롯데뮤지엄

관람료 성인 1만 3천 원, 청소년 1만 원,

어린이 7천 원

문의 1544-7744



연극 <생쥐와 인간>

브로드웨이 클래식 연극 <생쥐와 인간>이 한국에서 첫 정식 라이선스 공연을 펼친다. 미국 대공황 시대 젊은이들의 좌절과 방황,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대를 불문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애환, 외로움, 감동이 담겨 있다.

일시 7월 24일(화)~10월 14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2시·6시

장소 대학로 TOM(티오엠) 1관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문의 010-9327-4622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2018

국내외 일러스트레이터가 참가하는 일러스트레이션 전문 페어. 일러스트레이션은 물론 그래픽디자인, 캘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독립출판 등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750여 명이 모여 다양한 작품과 아트 상품을 선보인다.

일시 7월 26일(목)~29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26일 오전 11시~오후 6시)

장소 코엑스 D홀

관람료 성인 1만 1천 원,
청소년·어린이 7천 원

문의 02-2062-8600~1



예술로 신나는 여름방학

<예술로 바캉스>

서서울예술교육지원센터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함께하는 여름 문화예술교육 축제.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일시 7월 27일(금)~8월 5일(일)

장소 서서울예술교육지원센터

참가비 무료

문의 02-758-2044, 02-2697-0021



<루나파크展 : 더 디자인 아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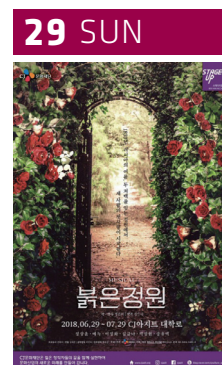
전설적인 디자이너 100여 명이 참여한 작품과 국내 디자이너들의 컬래버레이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콘셉트의 전시다.

일시 7월 27일(금)~11월 6일(화)
오전 10시~오후 8시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관람료 성인 1만 5천 원, 청소년 1만 1천 원,
어린이 9천 원

문의 1544-1555



뮤지컬 <붉은 정원>

러시아 3대 문호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이반 투르게네프의 소설 <첫사랑>을 각색한 작품. 치열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첫사랑을 통해 성장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클래식하고 세련된 음악으로 접할 수 있다.

일시 ~7월 29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월 공연 없음)

장소 CJ아지트 대학로

관람료 로즈석(1층) 5만 5천 원,
가든석(2층) 3만 3천 원

문의 02-3454-1401

제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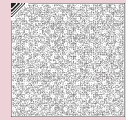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CHUNGMURO INTERNATIONAL
MUSICAL FILM FESTIVAL 2018

충무아트센터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2018.
7.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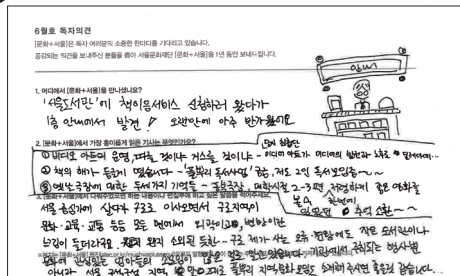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unhwaplusseoul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독자
엽서



이경숙 님(서울시 구로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도서관에 책이음서비스를 신청하러 갔다가 1층 안내소에서 발견! 오랜만에 아주 반가웠어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 ① '쟁점' - 과거의 최첨단 미디어아트가 미디어의 발전과 노후로 딜레마에...
- ② '화제 2' - '풀뿌리 독서사업' 궁금합니다. 저도 2인 독서모임 중입니다.
- ③ '서울 단상' - 동부극장... 대학 시절 좋은 영화 2~3편을 한 번에 저렴하게 볼 수 있었던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서울 중심가에 살다가 구로로 이사 왔는데, 구로가 문화, 교육, 교통 등 모든 면에서 변방이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왠지 소외된 듯한... 제가 사는 오류, 천왕에도 작은 도서관이나 문화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소모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뿐 아니라 서울 구석구석, 풀뿌리 지역문화 모임도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편집
후기

열일곱 번째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증거겠지요?
매번 반복되지만, 매번 설렙니다.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장

1년 같은 한 달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역시 마감이 있어야 끝이 있어요!
방유경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

축축 처지는 건 더위 때문일 겁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4인용
식탁

더 즐겁고 더 행복한

말실, 말술문화는 가라.
한 달에 한 번씩 찾는
SFAC 여성 간부 4인방과의 오찬. ^^
조직의 젠더 감수성이 '뽕뽕' 솟는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우연 극장장,
한지연 미디어소통실장, 임미혜 예술교육본부장,
오진이 전문위원, 주철환 대표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송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깊은 사랑 舍廊

박애리

7월 6일 (금) 오후 8시
7월 7일 (토) 오후 2시, 5시

채수현

8월 3일 (금) 오후 8시
8월 4일 (토) 오후 2시, 5시

하지아

9월 7일 (금) 오후 8시
9월 8일 (토) 오후 2시, 5시

입장권 전석
예매

상만원
서촌공간 서로
인터파크
30,000원
02-730-2502
1544-1555

2018 전통음악 상설공연
서로 초이 - 쓰

주최 | 이희문 콧-파니, 서촌공간 서로
주관 | 이희문 콧-파니
후원 | (주)세원특수금속, 서울문화재단

서촌공간 서로
seochon space SEORO

이희문 콧-파니
The Gyoyang-Seot Library of Lee Hee-mun

오마
서단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본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재단의 「2018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추진됩니다.